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과제

- 때 : 2010, 2, 2,(화), 14:00~18:00
- 곳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주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금강살리기범도민협의회
- 후원 : 충청남도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과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목 적

-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한강 살리기 사업 및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추진방안의 시사점을 발견, 탐색해 보고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잠복되거나 또는 현재화된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을 찾아보기 위하여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관간, 시군간, 주민간 갈등해결을 통한 협력방안,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으로 문제제기와 함께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예상되는 갈등소지와 관련한 공론화된 논의과정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

□ 개 요

- 때 : 2010, 2, 2(화), 14:00~18:00
- 곳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 주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 후원 : 충청남도
- 참석대상 : 40명 내외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충남 권역별 정책포럼 임원 및 회원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위원
 - 충남발전연구원 「금강살리기」 전문가

- 충청남도 관계관(「금강살리기」사업 관련부서, 갈등관리 포럼 관련부서)
- 금강권역 7개 시·군 관계관(「금강살리기」사업 관련부서, 갈등관리 포럼 관련부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관련 관계관
- 충청남도 및 시군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 행사일정(안)

■ 진행: 이준건 박사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시 간	내 용
13:30~14:00	• 등 록
14: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회 사 : 이주영 상임 공동대표(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축 사 : 유인상 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환 영 사 : 김용웅 원장(충남발전연구원, 포럼상임고문)
15:00~16:0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최창희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지역원로위원장) • 주제 발표 1 : 한강 살리기 사례를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현 교수 (공주대학교) • 주제 발표 2 :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정권 교수 (경원대학교) • 주제 발표 3 :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병학 박사 포럼운영위원장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16:00~16:10	• 휴 식
16:10~17:00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재 회장 (장항발전협의회) - 김선희 박사 (국토연구원) - 박철휘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 이성렬 부장 (충청투데이) - 이상일 대표 (부여정의사회시민연대) - 남광현 사무관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금강살리기사업팀)
17:00~17:10	• 휴 식
17:10~17:50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유덕준 (前,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구병 의원 (공주시의회,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 노재경 교수 (충남대학교) - 정준이 회장 (연기군여성협의회) - 안기전 대표 (금산사랑네트워크)
17:50~18:00	• 폐회 및 정리
18:10~	• 만찬

□ 상생협력 · 갈등관리 충남포럼 사무국 연락처

- 최병학 포럼운영위원장(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사무실/041-840-1230,휴대전화/,이메일/bhchoi@cdi.re.kr
- 이준건 포럼갈등조정위원장(상생협력 · 갈등관리충남포럼 사무국) -사무실/041-840-1238,휴대전화/,이메일/newsgun@hanmail.net
- 충남포럼 공식홈페이지 : www.pcpf.or.kr(네이버 검색 : 「플러스충남정책포럼」 등록)

<목 차>

■ 주제 발표 1 : 한강 살리기 사례를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방향-----	3
- 조 용 현 교수 (공주대학교)	

■ 주제 발표 2 :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의 시사점-----	32
- 최 정 권 교수 (경원대학교)	

■ 주제 발표 3 :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 유형화 분석 및 관리방향-----	42
- 최 병 학 박사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장)	

■ 부 록	
▷ 2010년도 금강살리기사업 추진현황-----	65
▷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별실태조사결과 및 시사점-----	71

【주제발제 1】

**한강 살리기 사례를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방향**

조용현 교수(공주대학교)



한강 살리기 사례를 통해 본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

2010. 2

조 용 현(공주대 조경학과)

목 차

한강 종합개발(1982~1986)

새서울 우리 한강(1999~2006)

한강 르네상스(2007~)

결 론

한강 종합개발 (1982~1986)

한강종합개발사업 개요

- 사업기간: 1982.9~1986.9
- 총사업비: 9,560억원(골재 판매비: 1,962억원)
- 주요 사업
 - ① 수로를 고정화·안정화시키는 저수로 정비를 통한 치수기능 확대
 - ② 하천공간의 고도이용을 기하는 고수부지 조성 및 공원화를 통한 휴식공간 확보
 - ③ 안전하고 쾌적한 동서교통망을 확보하는 올림픽대로 건설(강변도로 확장)
 - ④ 수질오염을 막아 한강물을 정화하기 위한 분류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건설
 - ⑤ 유람선과 수상 레저·스포츠시설 등 수자원 이용
 - ⑥ 기타 관련 계획사업



한강 시민공원의 현황 및 문제점

■ 한강 시민공원 현황 (중 12개 지구)

- 기 조성 : 9개 지구
- 미 조성 : 3개 지구



■ 지구별 시설현황

지구	이 용 륜	체 육 시 설						기 타 시 설				특 성		
		야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수영장	원드서핑	요트	빙상장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종교단지	연날리기장	선착장	
독섬	<div><div></div></div> 17.5%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수상활동 활발, 청담대교 건설에 의한 공간단절
잠실	<div><div></div></div> 15.2%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타지구에 비해 접근성 양호, 근린이용 활발함
광나루	<div><div></div></div> 3.3%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양호한 경관, 생태자원 보유, 상수원 보호구역
잠원	<div><div></div></div> 6.2%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가족단위 이용률 높음
반포	<div><div></div></div> 3.4%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인공섬 주변의 낚시터, 잠수교에 의한 공간단절
이촌	<div><div></div></div> 5.0%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청소년 이용이 활발
여의도	<div><div></div></div> 37.4%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전국규모의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
양화	<div><div></div></div> 6.9%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접근성 양호, 요트장 이용 활발
망원	<div><div></div></div> 5.0%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잔디밭으로 조성된 개활지, 시설 설치율 낮음

■ 공간활용 및 시설의 문제

- 단조로운 공간구성 및 도입기능의 다양성 부족
 - 유사형태의 공간 반복 / 나열
 - 단순한 기능으로 구성 (휴식, 운동 위주)
 - 지구특성이 결여된 획일적 시설배치 (매력도 저하)
- 시설배치, 규모, 형태의 부조화
 - 견인차 보관소, 수목원 등 부적격시설 혼재
 - 매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조악
- 열악한 이용환경
 - 친수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 하천으로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 단절
 - 여름철 그늘 부족



■ 경관의 문제

- 획일, 단조로운 경관
 - 각 시민공원 들은 형태, 기능에 있어 차별성이 없음
 - 아파트 일색의 단조로운 연변 경관
 - 볼거리와 랜드마크가 없어 경관적 정체성이 없음
- 인공호안 및 콘크리트 제방의 과다 노출
 - 수변을 따라 연속적이고 획일적인 콘크리트 호안의 삭막한 경관 형성
 - 주차장, 포장공간 등 인공재료의 과다 노출
 - 강변도로, 교량 및 교량 접근로 등 인공 구조물의 과다 노출





■ 동선의 문제

- 낮은 접근성 및 접근로의 인식성 부족
 - 부족한 접근로, 인지도 낮음
 -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불량
- 자전거 및 보행도로의 연계 불량
 - 자전거와 보행의 남북간 연계가 불가능
 - 제방 외부의 자전거 및 보행동선과 연계 불량
- 차량시설 과다
 - 보차교통의 모호한 분리로 통과 차량교통 발생
 - 과다하게 설치된 주차장이 편중 배치 되어 있음
 - 하천변에 위치한 주차장 → 횡단 차량동선의 발생



■ 생태적인 문제

- 치수 위주의 인공호안 및 제방
 - 수역과 유역의 생태적 단절 초래
- 수생태계의 파괴
 - 정기적 준설 및 퇴적사 제거
 - 하천의 자정능력 상실



새서울 우리한강 (1999~2006)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추진 배경

- 월드컵을 대비한 한강의 재단장 요청
 - 월드컵 경기장이 한강변에 위치한 상암동 쓰레기 매립지에 입지
⇒ ‘환경’ 대두
 - 환경월드컵의 선언에 따른 친환경적 한강 재단장 필요성
 - 월드컵 개최 전 가시적 성과 도출 요청
- 한강 환경의 문제점
 - ‘80년대 추진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치수와 한강공원 활용측면에 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경관이 단조로우며 그
늘이 없어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12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한사모) 운영

- 구성 배경

-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의 개발과 추진체계 마련
-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 수행
-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시민과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문적 검토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별도의 Task Force성격으로 운영

- **영양**

- 발족일자 : '99.11.25
- 분과구성 : 4개분과 82명(환경 19, 치수 22, 조경 24, 역사·문화 17)
- 인적구성 :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기 능 :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에 대한 자문
- 운영실적 : 총 52회 개최(전체회의 8회, 분과회의 19회, 기타회의 25회)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2000)



- 계획의 목적

-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
- 즐겨찾는 한강 만들기
- 가까운 한강 만들기

- 주요 사업 내용

- 자연형 호안, 생태공원 조성
- 한강변 경관 개선
- 접근도로망 재정비 등 50개 사업

- 실행 계획

- 단기 : 2000. 2001년
- 중기 : 5개년 계획
- 장기 : 지속적 추진

■ 『세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추진사업

사업부문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부문	사업분야	사업명
즐거찾는 한강 만들기	시민공원 시규조성	1. 선유도 환경 재활동 공원 조성 2. 노량진 수도공원 조성 3. 독섬 시민공원 조성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	인공경관 순화	26. 고가도로 하부식재 27. 인공 구조물 녹화 28. 성내천 환경개선 29. 탄천 환경개선 30. 반포천 환경개선 31. 불광, 홍제, 난지천 환경개선 32. 고덕지구 생태 식물원 조성 33.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조성 34. 동작지구 생태통로 연결 35. 광나루, 고덕지구 생태통로 연결 36. 수중 서식공간 확충 37. 수변 서식공간(자연초지) 확충 38. 하수 처리시설 확충 39. 소규모 하수 처리장 건설 40. 조류발생 방지 41. 상암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 42. 독섬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 43. 용산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 44. 마곡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 45. 한강변 경관관리지구 지정 46. 주요지역 경관 특별관리 47. 연접지역 도성기능 도입 48. 잠실 강거 설치 49. 한강 저수로 준설 50. 수상이용시설 (재)배치
	시민공원 재조성	4. 잠실 시민공원 재조성 5. 광나루 시민공원 재조성		지천환경 개선	
	시민공원 시설물 개선	6. 간이 시설물 개선 7. 가족피크닉, 쉼터 조성 8. 다양한 레저, 체육시설 도입 9. 계절별 풍경단지 조성 10. 수경 랜드마크 조성 11. 한강유역 복원 및 전통의식 재현 12. 한강 뱃길 700리 관광상품 개발 13. 관광 비행선 운항 14. 교량조명 및 외관 개선 15. 한강 문화예술축제 개최 16. 교량, 지하철 연계 보도육교 확충 17. 지하철역 연계 셔틀버스 운행 18. 지하철역 연계 셔틀버스 운행 19. 지하보도 환경개선 20. 강북구간 자전거 도로 신설 21. 교량과 자전거 도로 연결 22. 자전거 자유 반환제 도입 23. 한강 연변지역 녹화 24. 둔치식재 25. 자연형 호안 조성		생태공원 및 생태통로 조성	
	시민공원 기능 다양화			수생태계 회복	
	다양한 볼거리 개발			한강 수질개선	
				내일을 여는 한강 만들기	
가까운 한강 만들기	보행 접근성 개선			연변 미개발지 관리계획 수립	
	순환 자전거 도로망			한강변 경관관리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	인공경관 순화			토지이용계획 재검 토	
				기 타	

계획의 접근방법

부분적 재정비

경관 불량 요소의 정비, 개선

식재 및 자연호안의 도입

일부시설의 변경 및 축소

접근로 및 접근수단 확충



시민공원 전반에 적용

전면적 재정비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의 개편

호안 및 지형의 개선

수변 위락기능 강화

지구별, 구역별 특성화 도모



재조성 3개 지구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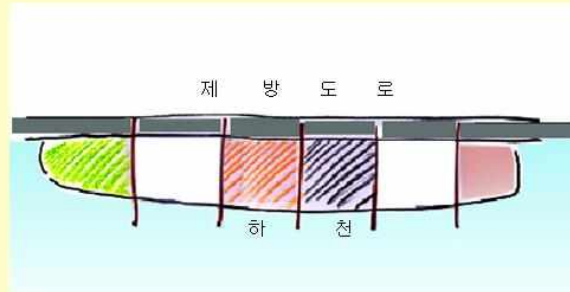


기본 개념

■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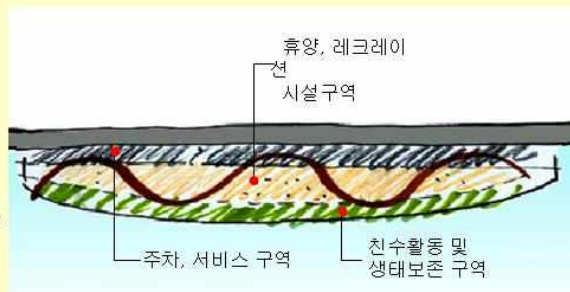
• 기존

- 횡단으로 토막난 공간
- 공간 상호간의 연계, 연속성이 없음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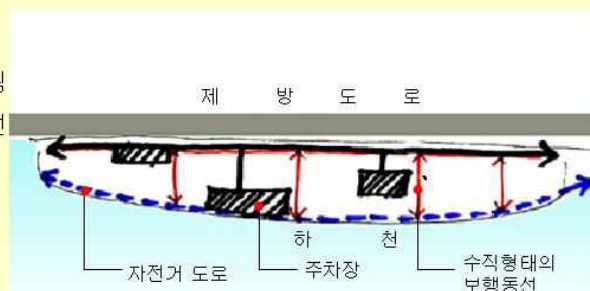
- 종단으로 공간분할
- 제방측: 주차, 서비스 구역
- 중간층: 휴양, 레크레이션 구역
- 수변층: 친수 활동 및 생태보존 구역
- 시설상호간의 연계 및 특화



■ 동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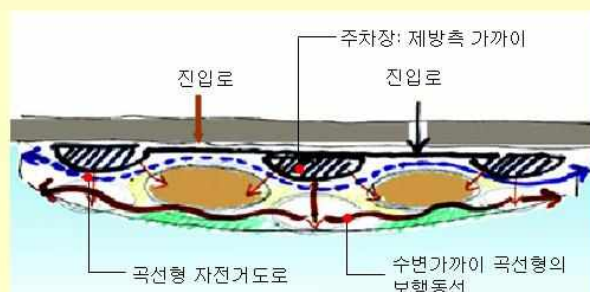
• 기존

- 제방변의 차량동선, 통과동선으로 사용됨
- 하천과 고수부지를 단절하는 자전거 동선
- 제방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수직 동선



• 개선

- 제방측에 차량동선 및 주차장을 배치
- 자전거 동선은 차량동선과 연결 시킴
- 곡선형의 보행동선을 수변에 입지시킴



■ 녹지조성 / 시설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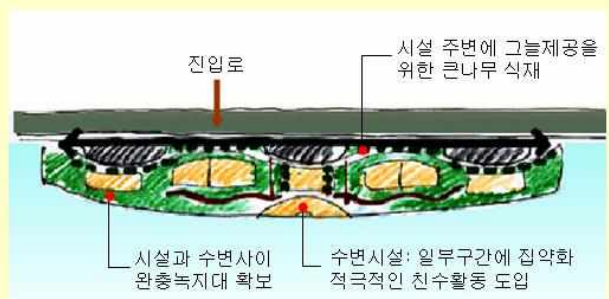
● 기존

- 방형으로 구획된 시설과 녹지
- 과도한 포장면
- 시설 속의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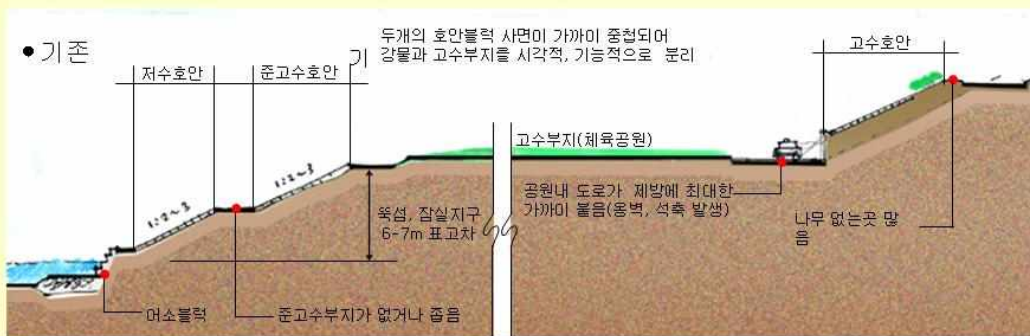
● 개선

- 시설과 수변 사이에 완충 녹지대의 도입
- 적극적인 친수활동 공간의 도입
- 녹지 속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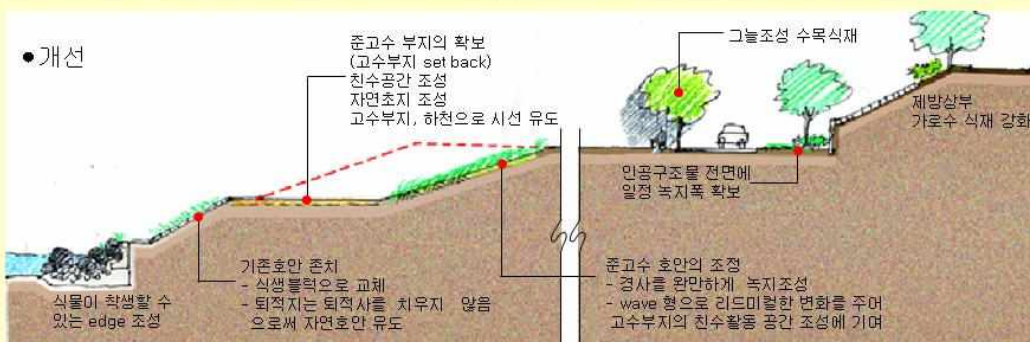


■ 하천단면

● 기존



● 개선





■ 암사 (광나루) 지구

● 개요

- 면적: 673,200㎡
-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
-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 보유
- 이용률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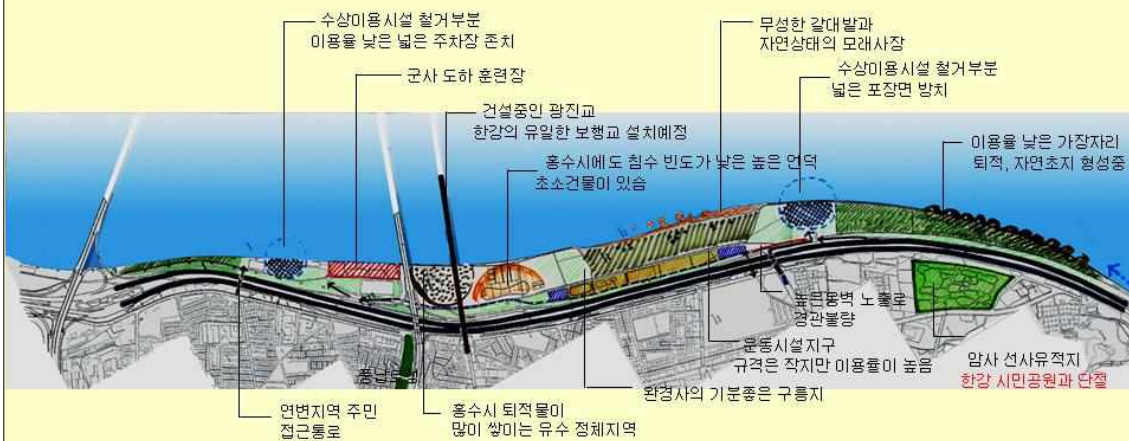


● 조성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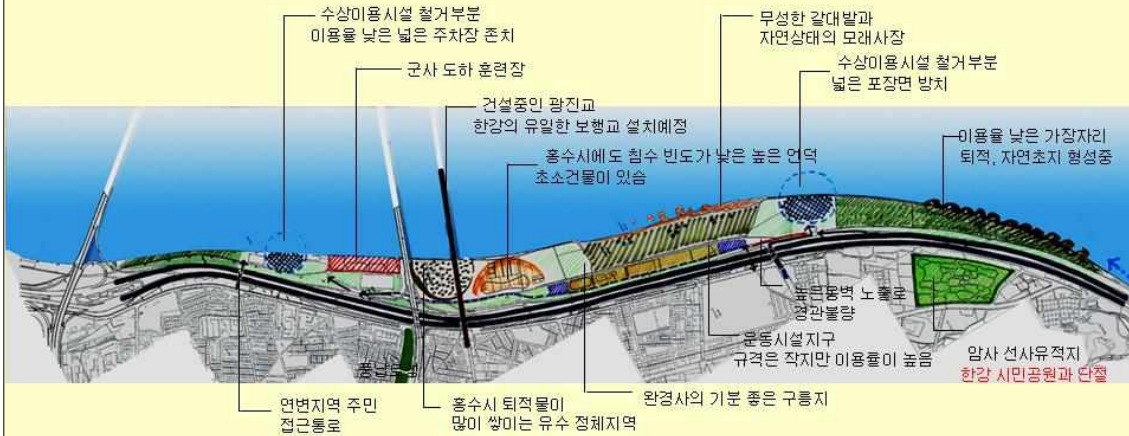
- 잘 보전된 자연환경의 보전
- 암사 선사 유적지와의 연계공간 조성
- 광진교 연계 공간의 조성



■ 암사 (광나루) 지구 현황



■ 암사 (광나루) 지구 현황



■ 암사 (광나루) 지구 구상



암사정 주변조성 개념도



갈대밭지구 횡단면도



퇴적구간의 자연호안 조성





■ 암사 (광나루) 지구 기본 계획도



- | | | |
|------------------|-----------------|----------------|
| 1. 가족 피크닉장 | 6. 수영장 | 11. 캠프교실 |
| 2. 접안시설 | 7. 고위습지(관찰데크) | 12. 선사유적지 연결통로 |
| 3. 주차장 | 8. 매점 및 화장실 | 13. 역사문화 체험장 |
| 4. 광진 보행교 진출입 램프 | 9. 기존 시설지(운동시설) | 14. 생태수로 |
| 5. 암사정(전망대) | 10. 가족 피크닉장 | 15. 자연생태 보존지구 |



■ 암사 (광나루) 지구 식재계획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의 경험

• 성과

- 한강과 관련된 다양한 관리목표를 포괄하는 합의된 미래상 제시
- 한강관리 목표체계에서 우선순위의 명시적 전환
 - 생태계 복원(‘살아 숨쉬는 한강’)이 지수를 제외하고 가장 우선하는 목표로 바뀜
-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 친환경적 하천개발계획 추진체계의 경험
- 월드컵 대비 성공적인 한강 재단장

27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의 경험

• 반성

- 목표: 상충적인 관리목표 사이의 우선 순위가 불명료함으로 인하여 같은 지역범위 안에 서 이질적이고 상충적인 사업의 공존
- 계획의 성격: 단기사업 위주로 구성되었고, 제시된 계획도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미흡함
- 의사결정체계: 한사모의 의견과 배지되는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의 발생
- 급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절차상의 무리
 - 급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조사-평가-구상-기본계획-실시설계-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일부(조사와 평가) 약식으로 진행됨
 - 실무부서로부터 단기사업을 수집하고 이를 꿰어 맞추기 식으로 조합한 구상안을 기본계획으로 정당화하는 절차상의 무리
 -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설계, 사업시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문제가 돌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정과정을 거치지 못함
- 사업 범위: 사업범위가 주로 한강 본류에 한정되어, 지전을 다루지 못함

28



한강 르네상스(2007~)

정책 기조 / 비전

생명과 문화, 역사가 흐르는 한강 : “회복 / 창조”

생명 + 물	도심 생태공원 확충 / 수변녹화 등 확대
문화 + 역사	정자·나루터 복원 / 역사 테마파크 조성 본격화
물 + 사람	서해 비단벚길 조성 / 수상 교통·네트워크 확대
사람 + 문화	수변 공연·축제 다양화 / 수상 프로그램 활성화

➡ 생명, 녹지, 물, 문화, 사람 등 한강을 둘러싼 구성요소간
연계성 극대화, 시너지 효과 창출

9

한강르네상스 사업 분야별 주요성과

1단계 : 5개 분야, 33개 사업

2007 ~ 2010년 76,392억 원

● 완료 21개 / 추진 중 11개 / 보류 1

분 야	개	주 요 사 업
자연성 회복(7개)		인공호안 녹화, 암사/강서 생태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등
문화기반 조성(12개)		4대 특화공원, 달빛 무지개 분수, 플로팅 아일랜드, 자전거 공원 조성 등
접근성 향상(6개)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 지하통로 환경정비, 접근도로 정비 등
경관 개선(4개)		한강교량/공원 경관개선, 한강변 건축경관 개선 등
수상이용 활성화(4개)		한강주운 기반조성, 수상교통수단 도입, 수상이용 시설 관광자원화 등

※ 추진 중 : 11개 사업

-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 지천 생태복원 / 한강변 건축경관 개선
- 플로팅 아일랜드 / 서해연결 주운 기반 조성 등

3

1. 자연성 회복 (7개 사업 : 완료 4, 추진중 3)

- 인공호안 /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09.9)
 - 한강수변 72km중 1단계 10.9km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 부분개장('10.4 예정)
 - 182,000㎡ 넓 758,000㎡(공정 76%)
- 암사 생태공원 [162,000㎡] 조성('08.12)
- 강서습지 생태공원 [370,000㎡] 조성('08.12)
- 성내천 등 10개 지천 생태복원('10.10 예정)
 - 성내·우이천 완료 / 홍제천 등 6개 지천 공사중



암사 생태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4



2. 문화기반 확충 (12개 사업 : 완료 9, 추진중 2, 보류 1)

- 4대 한강공원 특화('09.4 반포 / '09.9 여의도·독섬·난지)
 - 세계 최초 달빛무지개분수 설치(반포)
 - 피아노 물길, 물빛광장, 플로팅 스테이지가 어우러지는 신수변 문화공간 조성(여의도)
 - 갈대바람길 / 생태습지원 등 친환경 컨셉 공원(난지)
 - 수상레포츠·가족형 테마파크(독섬)
- 광진교 걷고싶은 다리 / 하부전망대 설치('09.8)
- 광나루·난지 자전거공원 조성('09.9)
- Floating Island 조성('10.4 예정)
- 전망문화 Complex(자벌레) 조성(인테리어 중)



5

3. 접근성 향상 (6개 사업 : 완료 5, 추진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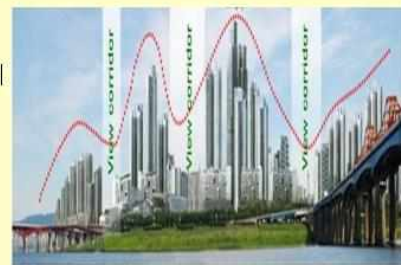
- 난지 중앙연결다리, 보행교 신설 3개소('09.9)
- 나들목 환경정비 34개소('09.7)
 - 6개소 신설공사 중
- 자전거도로 / 산책로 분리 69.1km(1단계 '09.12 예정)
- 한강 접근 안내표지판 정비 187개소('09.11)
 - 공원 내 안내표지판 전면개선 : 신설 등 420개소('10.3 예정)
- 교량 보행환경 개선 : E/V, 버스정차대, 전망카페 등
- 한강 접근도로 환경개선 : 38개소('08.12)



6

4. 한강변 경관개선 (4개 사업 : 완료 2, 추진중 2)

- 한강 20개 교량 조명 개선('09.6)
- 한강 12개 공원 조명 개선('09.10)
- 한강변 건축경관 개선 추진
 - 한강변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08.4)
 - 한강변 민간 건축물 경관조명 개선 조례제정('08.5)
 - 한강 연접지역 경관·기능 개선방안 마련('09.1)
 - ※ 공공성 회복/공공관리자제 별도추진(주택국/도시계획국)
- 인공 수상구조물 경관개선 집중 관리체계 구축
 - 수상구조물 관리방안 학술용역('09.1~9월)



7

5. 수상이용 활성화 (4개 사업 : 완료 1, 추진중 3)

- 수상 콜택시 도입 : 10대('08.4)
 - 이용인원 총 89,084명(1일 평균 146명)
- 한강르네상스 1호 운항('09.9)
- 한강투어선 건조 : 680톤 / 310명 승선('10.7 예정)
-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 조성(실시설계 중)
- 유람선 리모델링, 노후 유선장 등 수상시설 개선(추진중)
- 제도 개선
 - 선박법 개정·규제 완화 4건
 - 수상구조물 등에 등기 / 광고 허용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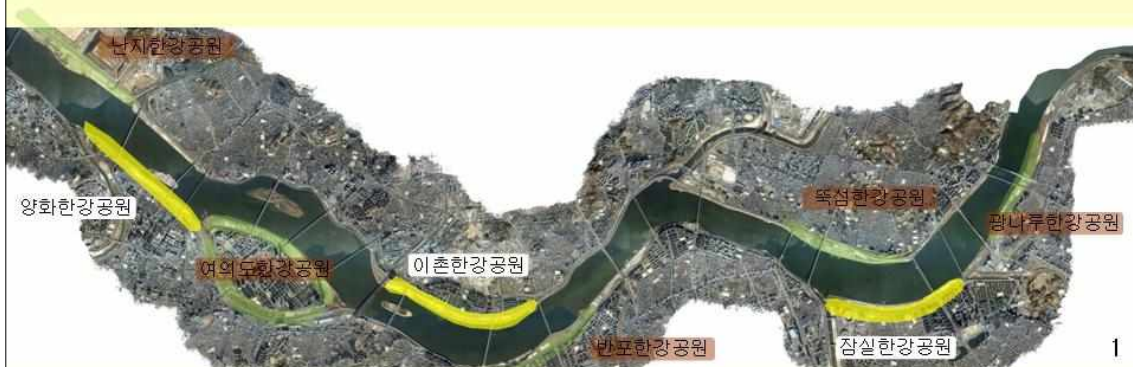
8



한강공원 2단계 특화사업 개요

사업 개요

공원 명	잠 실	이 촌	양 화
규 모	53만 ㎡	49만 ㎡	25만 ㎡
사 업 비	760억원	450억원	450억원
사업기간	2009년 1월 ~ 2012년 12월		



기본 방향

- 생태적으로 복원이 유리한 지역을 생태공간으로 특화
 - 퇴적부, 지천 합류부 등 생태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생태공간으로 특화
 - 단조로운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형 호안으로 개선
- 권역별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아이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도입
 - 1단계 특화시설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시설 계획

구 분	잠 실	이 촌	양 화
생태공간	성내천 합류부를 중심으로 생태공원 조성	남북육경축 교차지역을 대규모 녹지로 특화	여의도 샛강과 연계하여 하천 생태복원
특화시설	디자인 테마 서울디자인한마당과 연계	음악 테마(Music Park) 한강 예술섬/보행교와 연계	문화예술 테마 선유도/문래예술공장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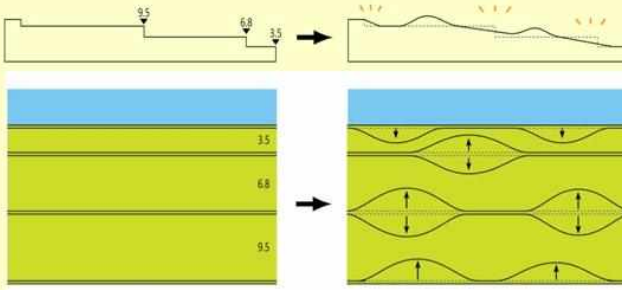
2

설계시 중점 고려사항

하천 생태회복과 적극적 친수공간 조성

- 수류의 특성 상 퇴적이 유도되는 곳, 지천과 합류되는 곳을 생태공원화
- 공원의 전체적인 지형조형을 통하여, 자연스럽고 다이나믹한 수변경관 창출
- 길고 굴곡 있는 사선지형을 유도하여 물과 접촉부위를 최대화
-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이용도가 높은 수목, 초지, 잔디밭 존치

• 새로운 경관창출(기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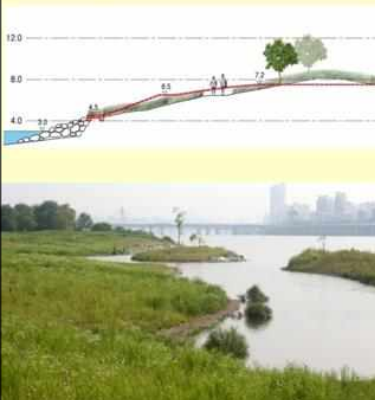
• 굴곡 있는 언덕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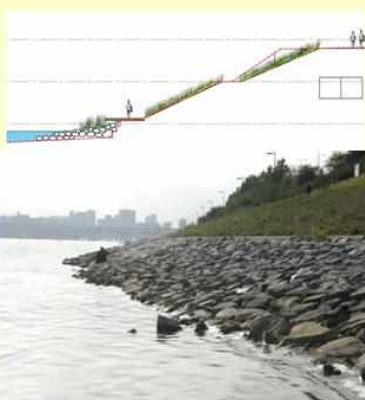
강변의 풍취를 고려한 호안계획

- 지천합류부는 생태공원화하여 친변습지 및 친환경호안 조성
- 고수부지의 지형의 굴곡조성으로 원활한 배수유도 및 다양한 동식물 서식공간 조성
- 수충부 등은 사석 등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
- 사석호안에는 달뿌리풀 등 수생식물 식재하여 자연경관 회복

생태공원 구역



친수호안 구역(수충부)



고수부지 지형굴곡





● 생태공원/녹지 조성방향

- 시민이 만드는 생태공원(시민, 전문가 참여)
 - ※ 녹색위 주관 특화공원 생태복원 전략 수립
- 지속 가능한 생태공원(기존 초지 및 수목 존치)
- 인접 생태와 연결, 생태공간 확대
(버드나무, 갈대, 억새 군락 등 보존, 확대)
-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생태공원 조성



구분	잠실	이촌	양화
공원면적	530,000㎡	495,000㎡	250,000㎡
녹지면적	292,180㎡(44% ⇒ 55%)	244,600㎡(42% ⇒ 50%)	162,660㎡(27% ⇒ 45%)
생태공원	면적 71,000㎡/연장 850m	면적 192,000㎡/연장 2km	면적 76,000㎡ / 연장 1km

5

● 공원 주요 동선 네트워크

- 공원 내 관리도로를 제방 측으로 조성(80년 홍수 계획고) 홍수 시 시설 대피장소 확보
- 자전거도로 외곽 배치/간선도로화(자전거 통과교통량 90% 상회)
- 공원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공원 중앙에 다목적 중앙통로 확보
- 수변 프롬나드 및 생태 탐방로 등 물과 인접한 동선체계 구축



결론

금강을 하천답게 되살리자!!

- 」 하나의 사회적 운동(하천재생운동)으로
- 」 하천은 자연화 / 하천변은 공원화
- 」 하천을 생태회랑으로 취급해야(하천 물길/물길 연결성의 회복)
- 」 하천사업 대상범위의 확대로 물길과 홍수터뿐 아니라 홍수터에
연접한 육상 전이대까지 포함해야(자연하천 횡단면의 재생)
- 」 기타 몇 가지의 보완



하천재생운동으로

」 하천재생 접근 방법(생태계 접근법)

- 생물서식환경에 초점
- 하천유역단위 접근법
-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공동 노력



- “하천재생운동으로”

하천재생운동의 개요

」 목적

-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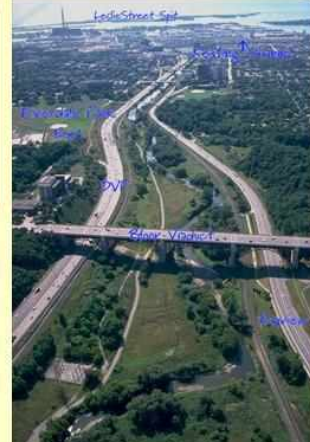
」 목표

- 맑은 하천
- 인공하천이 아닌 자연하천
-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고수부지 이용
-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 주변 토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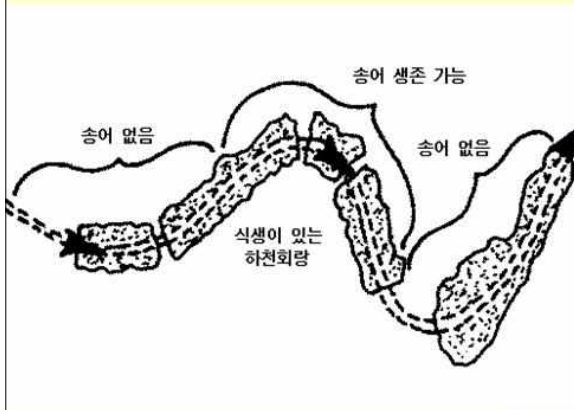
하천재생운동의 원칙

- 」 하천보호를 위한 새로운 원칙들의 도입
- 」 평가의 척도이자 모범이 되는 자연적인 하천 상태 규명
- 」 구속력 있는 평가도구로서 하천 수질 및 하천 서식지 질의 도입과 목표 추구
- 」 하천의 재생력 부활
- 」 자연적인 고수부지의 부활 및 홍수완화
- 」 하천 및 하천변 소생물권의 재생성

하천 자연화 / 하천변 공원화



하천 회랑의 물길/물길 연결성 회복



Dramstad et al. (1996). p.49.



최정권(2002).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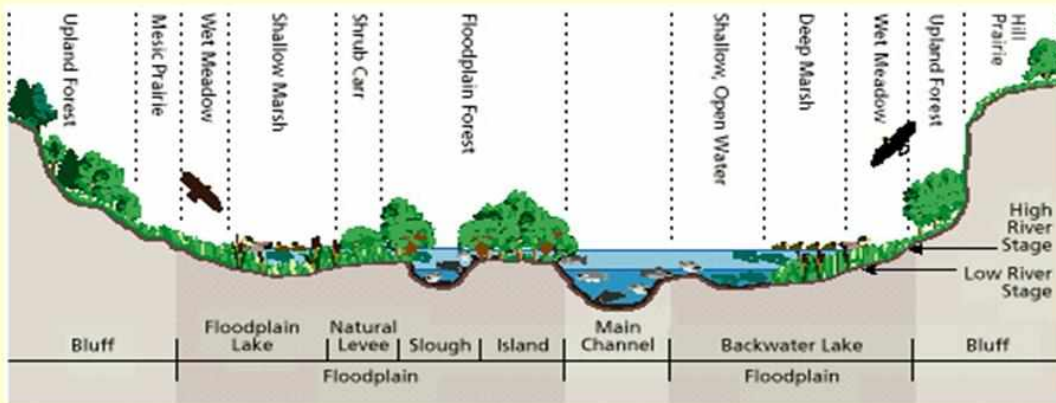
일본생태계협회(1995). p.113.

소동물 이동 통로 조성



일본생태계협회(1994). p.61.

하천 횡단면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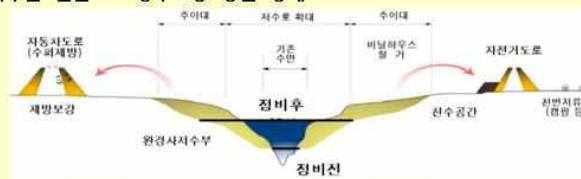


기타 1: 하천 제방의 치수안전성 제고

목표 : 100~2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한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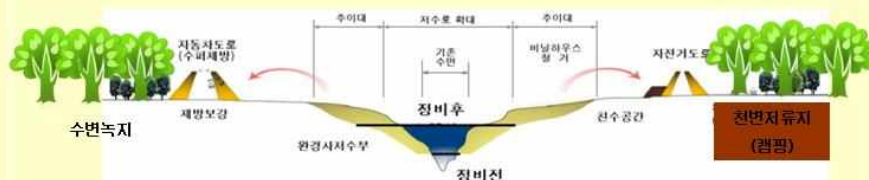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기존 제방 536km 보강 · 수퍼제방 축조 ⇒ 제방 안전도 증대
- 중소규모 댐 · 저류지 건설 ⇒ 유역내 홍수조절 능력 증대
- 과도한 퇴적구간 준설 ⇒ 홍수소통 공간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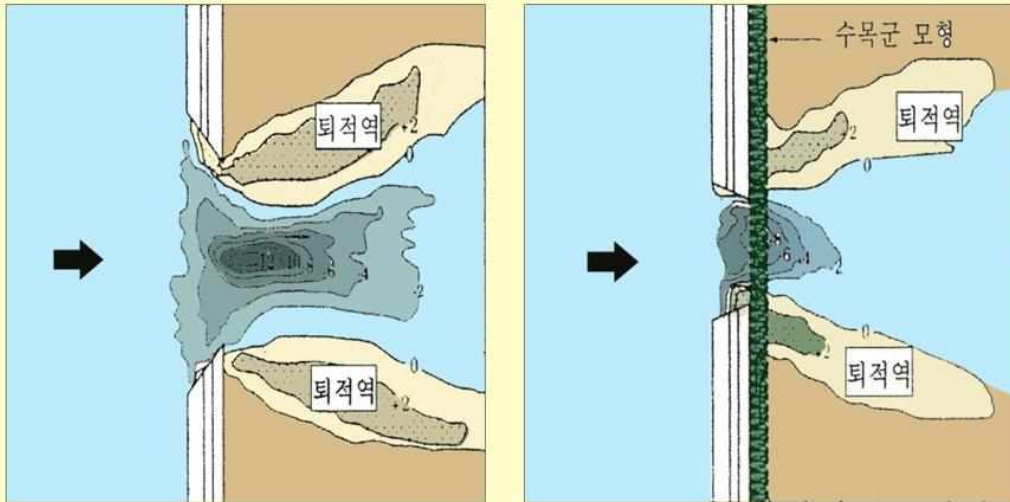


하천생태계 재생

- 수변녹지 조성을 통한 제방의 안전성 제고
- 제방 및 전면저류지 공간을 수변생태벨트와 연계하여 조성



하천 제방의 치수안전성 제고



53

기타 2: 비점오염 저감으로 수환경 개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목표 :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강

- 환경기초시설 확충 ⇒ 수질개선 및 수질정화 관련산업 파급효과
- 하천내 경작 제한적 금지, 오니 준설 등
⇒ 오염원 저감 및 오염총량 여유확보



하천생태계 재생

- 수변녹지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
- 외부유입수에 대한 침전 및 정화기능



54

기타 3: 하천 회랑의 생태적 기능 재생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목표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강

- 생태습지 640만 m² 조성 (여의도 면적 2배) ⇒ 하천생물 다양성 및 생태서식공간
- 하천주변 887만 m² 녹지벨트 조성 (여의도 면적 3배) ⇒ 생태축 복원




하천생태계 재생

- 하천회랑(하천구역+수변구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생태계 재생





55

기타 4: CO₂ 저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목표 : 지구환경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녹색성장의 강

- 저탄소 녹색성장 :
녹지벨트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연간 10만톤 CO₂ 저감
⇒ 탄소 배출권 가액 약 26억원

하천생태계 재생

- 수변구역면적 1,194km²에 대한 수변녹지 조성 효과 예측

구분	경과 년 수			
	10년	20년	30년	40년
연간 CO ₂ 흡수량(kt)	2,519.3	3,283.5	3,438.7	3,116.3
경제가치(억원)	12,596.7	16,417.5	17,193.6	15,581.7

56



감사합니다.

【주제발제 2】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본
금강살리기 사업의 시사점**

최정권 교수(경원대학교)



CDI 충남발전연구원



안양천 살리기사업



2010. 2
경원대학교 최정권

목차

1. 안양천 살리기사업의 개요
2. 생태계 모니터링과 적응관리
3. 21c의 하천계획과 사업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

•위치/규모

- 안양천 관내 하천수계 (32.64km)
- 안양천 분류, 학의천, 수암천, 삼막천, 삼성천 등 지천 포함

•목적

- 벼들이가 들어오는 건강한 안양천
- 홍수, 가뭄 걱정이 없는 안전한 안양천
- 시민이 가까이 찾는 즐거운 안양천

•주요내용

- 하천현황조사 및 분석
- 안양천 살리기 기본구상 및 미래상 제시
- 안양천 살리기 기본 방향
- 안양천 살리기 세부시행계획
- 하천환경 관리 지침



안양천 살리기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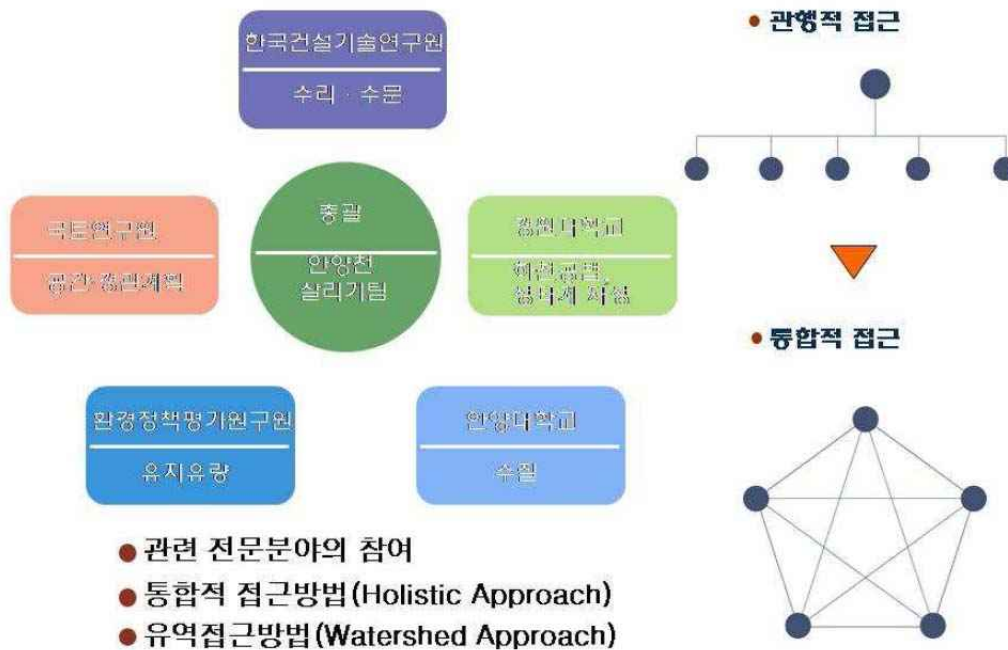


● 안양천 살리기사업의 연차별 진행



5

● 계획팀의 구성



6

생태계 모니터링

I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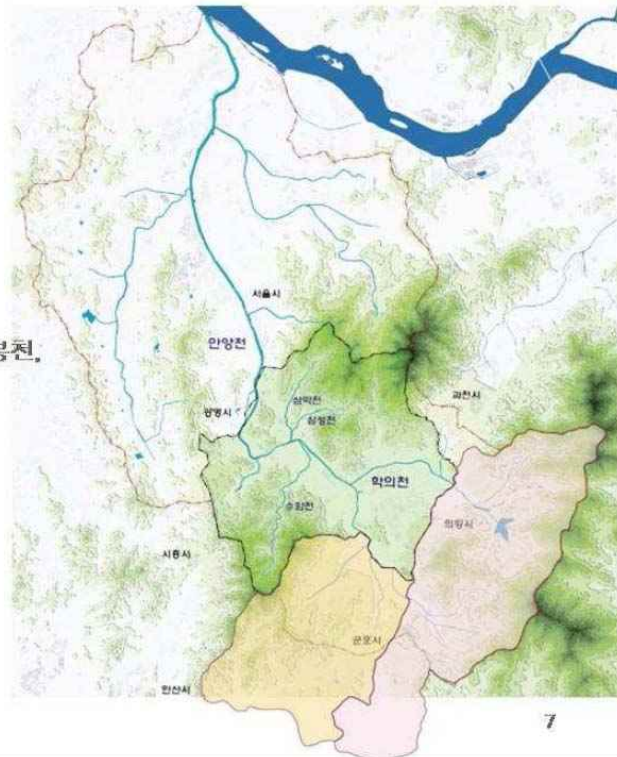
- 2001년 ~ 2010년(10년)

I 공간적 범위

- 안양시 면적 : 58.47 km²
- 안양천 본류 : 11.8Km,
- 지 천 : 학의천 (4.5Km) 수암천, 삼봉천, 삼막천, 삼성천

I 내용적 범위

- 생태계조사(생물상 변화 관찰)
- 수환경조사(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 공법 및 경관 모니터링
- 적응관리방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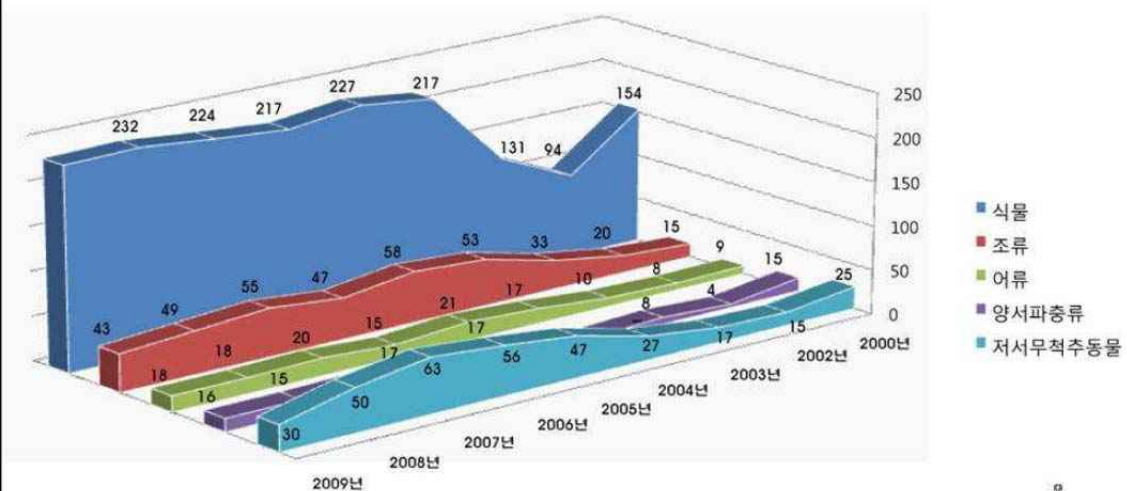
분류군별 생물종수 경년 변화

I 2000 - 2003년

- 복원 초기 교란
- 생태계 불안정

I 2004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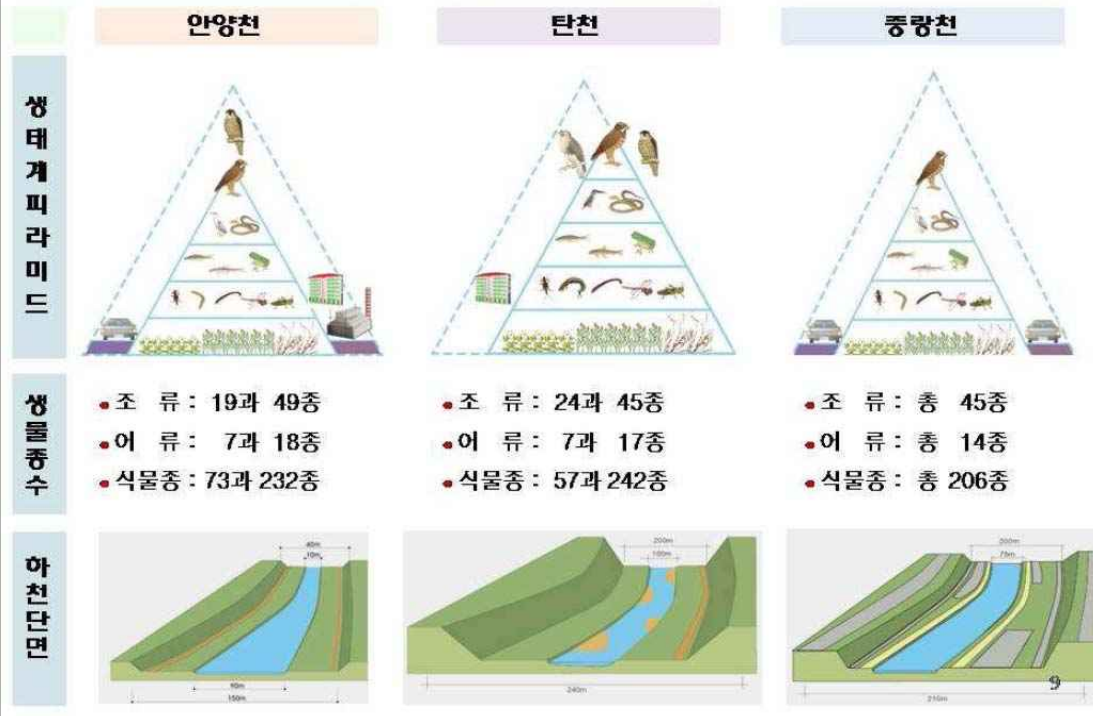
- 종다양성 증가
- 생태계 안정



8



유사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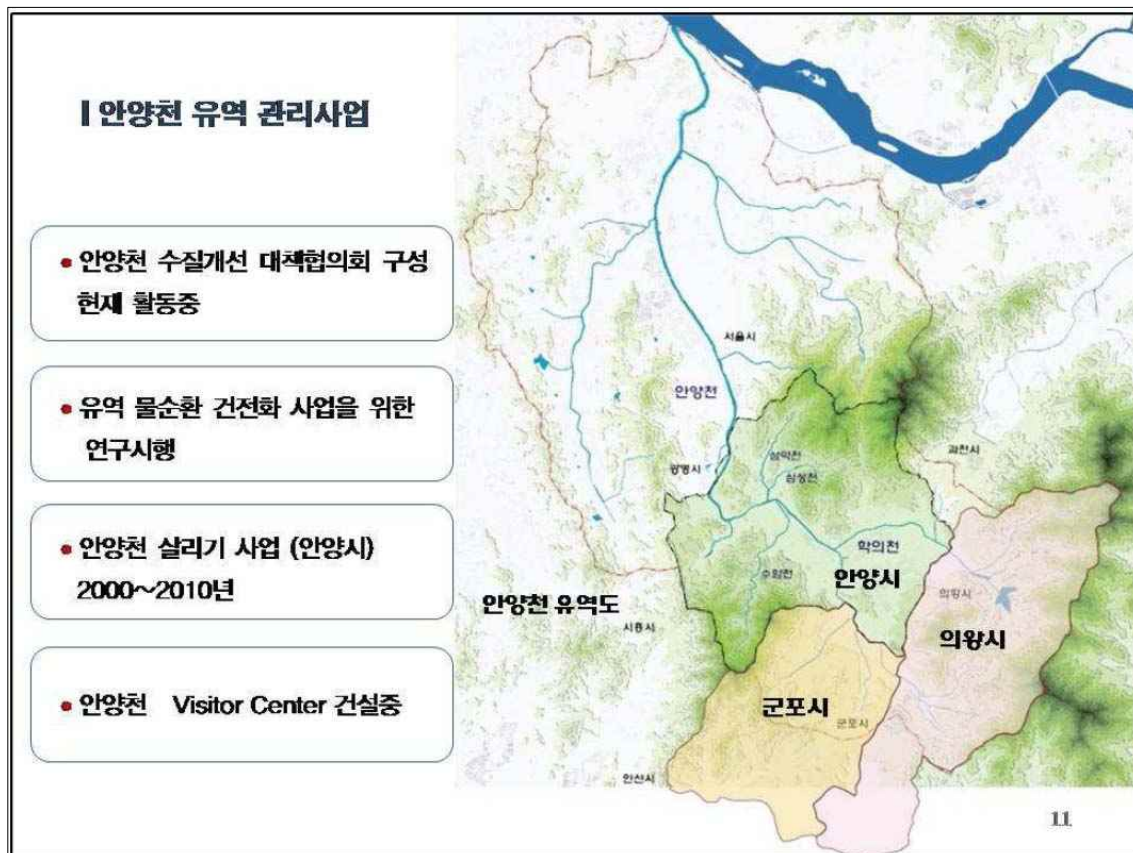


하천 생태계 적응관리



- 예측 모니터링 (Anticipatory Monitoring) : 복원 가능성을 예측
- 기준선 모니터링 (Baseline Monitoring) : 복원 실행단계에서의 모니터링
- 실행 후 모니터링 (Follow-up Monitoring) : 복원 실행 후 성과 검증 단계에서 실행

※ 적용관리 : 맞춤형 관리, 생태계역동성, 변화과정
(Adaptive management)



I 관행적 접근 방식과 유역접근방식의 비교

		관행적 접근방식 (Conventional Approach)	유역 접근방식 (Watershed Approach)
범 위	공간적	하천 수계	하천 유역
	내용적	치수, 수질개선	총체적 하천 환경 개선
	시간적	단기	장기
접근 방법		개별적	통합적
의사 결정		수직적	수평적
주 체		공공부문	민간, 공공, 파트너쉽

12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Plus Chungnam Policy Forum

【주제발제 3】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 유형화 분석
및 관리방향**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최 병 학

(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위원장)



순 서

- I. 서 론
- II.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 III. 금강살리기의 갈등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 IV. 결 론 :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



1. 서론

■ 서론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금 강

-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하여 충북과 충남을 거쳐 강경에서 부터 충남·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강
- 굽이치며 흐르는 물결이 비단결과 같다하여 조상들이 금강이라 불렀으며, 아름다운 강이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민족

문제제기

- 충남지역은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단계서부터 7개 시·군간 중복사업 및 과다사업, 편입농지 및 골재 채취 등과 관련 보상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임
-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7개 금강권역 시·군간 발생 갈등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정책과제

2.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추진체계
- 협의체 구성·운영

「금강살리기」 사업 개요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 추진목표

- 항구적 수해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종합적 하천정비로 안전한 국토 건설
-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등에 대비

● 미래 치수-이수-천수 공간 제공

- 재난·재해를 줄이고 물 이용 극대화
-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문화관광 개발

●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역균형 개발
- 취업유발효과(3만명), 생산유발효과(3조3천억원)



※ 전국 4대강 살리기

⇒ 취업유발효과(21만명), 생산유발효과(23조원)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단위 : 억원)

사업내용		수 량	사업비	비 고
합계(억원)		-	24,727	
국토부	소 계	-	16,598	
	하도정비(준설)	0.5㎢	3,720	
	보	3개소	2,023	
	생태하천 조성	41개소 124km	5,772	
	제방보강	26개소 71km	2,371	
	자전거 도로	248km	303	
	기 타	-	2,409	
농림부	농업용 저수지	30개소	6,767	
환경부	수질대책	99개소	1,362	

※ 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2009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체계(중앙정부 주관)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아름다운 금강만들기 추진협의회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
- 대전시·충남북, 공주·논산·연기·서천·부여·금산·청양, 전북도와 지역민, 환경단체, 행복도시건설청, 금강환경청,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 참여 (16명)
-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의견 반영
- 추진 단계별 진행사항 점검 등 친환경 공간 조성예산 지원

■ 협의체 구성 · 운영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 금강 살리기 범도민 협의회

-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 실시(09. 02. 09 출범)
- 금강살리기 사업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협의체
- 금강권역 7개 시 · 군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6명
- 정부 및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자문과 의견제시
-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제시

* 금강살리기 7개 시 · 군 공동협력포럼 개최(09. 04. 10)



3. 금강살리기 갈등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 시 · 군 갈등소지
- 갈등발생 요인
- 조사개요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 조사의 주요결과
- 국내 · 외 사례분석

「금강살리기」 관련 예상되는 시·군간 갈등 소지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금강살리기 시·군별 의욕적인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

상·하류간
수량·수질
갈등 발생

보상관련
갈등 발생
(농지·골재)

환경보전과
개발사업간
갈등재현

이해당사자
및 NGO간
갈등소지

생태보호와
농수이용간
갈등(하구연)

- 상·하류 지자체간 물 이용에 따른 수량 및 수질문제(용수갈등)
- 지역특성과 경제성을 고려치 않은 과잉투자과 유치경쟁
- 인접지역의 영향을 고려치 않은 단독적 사업강행
- 단기간내 실적만을 앞세운 실현불가능한 사업추진
- 수자원 배분 및 환경오염 처리비용 부담문제 등

「금강살리기」 관련 갈등의 발생 요인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

- 대운하 선도사업이라는 끊이지 않는 논란
- 환경단체 등의 반발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환경훼손 문제

- 생태계의 교란 우려
- 가동보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예산확보 및 점유지 보상문제

- 정비, 환경보전, 보상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 우려
- 불법점용 농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침마련 시급

수질오염 문제
시·군간 갈등
NGO의 반발
연계사업의 실효성 등
다양한 갈등요인



■ 조사개요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금강권역 7개 시·군 750여명
- 조사기간 : 2009년 7월 15일~31일(2주간)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설문분석 : SPSS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사용
- 설문사용률 : 694부(92.5%)
- 인터뷰 조사 병행 실시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 남자 435명(62.8%), 여자 258명(37.2%)
- 연령 : 40대 218명(31.4%), 30대 201명(29.0%) 등
- 학력 : 대졸 269명(39.0%), 고졸 233명(33.8%) 등
- 직업 : 공무원 220명(31.7%), 농업 99명(14.3%) 등
- 거주지 : 청양군 108명(15.6%), 논산시 102명(14.7%) 등

■ 조사의 주요결과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 잘 알고 있음(190명, 27.5%)
-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찬반여부 : 찬성(266명, 38.6%)
-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발전 공헌 여부 : 도움이 됨(241명, 35.9%)
- 보설치,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의 필요성 : 필요(209명, 30.6%)
- 하수처리시설, 생태하천 조성 등 필요성 : 필요(242명, 35.4%)
- 자전거길 설치, 옛 뱃길 복원 등 필요성 : 필요(216명, 31.7%)
-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행위주체간 갈등소지 예상 : 중앙(지방)-NGO(150명, 21.8%)

■ 조사의 주요결과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갈등 예상 사업
: 생태하천복원(199명, 29%)
-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영향정도 : 다소 큼
-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표출형태 : 현재적 갈등
-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발생범위
: 지역간 갈등(300명, 43.6%)
-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주체
: 중앙정부(217명, 31.3%)
- 갈등중재, 조정포럼 역할의 필요성 : 필요(338명, 49.1%)

■ 조사의 주요결과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직업군에 따른 갈등 예상 사업의 교차분석]

항 목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준설작업	19	73	28	120
보 설치	10	40	50	100
생태하천복원	30	118	51	199
관광위락시설	6	36	28	70
제방보강	5	7	3	15
댐, 조절지 건설	8	40	26	74
자전거길 조성	0	3	2	5
농업용 저수지 증고	13	22	3	38
수질개선	5	26	14	45
기타	1	7	12	20
전체	97	372	217	686



■ 조사의 주요결과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거주지(지역)에 따른 갈등 예상 사업의 교차분석]

항 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타	
준설작업	6	11	11	24	10	26	24	8	120
보 설치	19	11	8	18	11	17	11	5	100
생태하천복원	21	37	33	27	20	16	32	13	199
관광위락시설	11	9	9	13	8	10	8	2	70
제방보강	0	6	0	1	6	0	2	0	15
댐, 조절지 건설	10	7	16	10	5	8	13	5	74
자전거길 조성	0	1	2	0	1	1	0	0	5
농업용 저수지 증고	3	12	0	3	2	7	8	3	38
수질개선	4	5	9	2	3	11	7	4	45
기타	0	3	1	0	9	4	1	2	20
전체	74	102	89	98	75	100	106	42	686

■ 국외 사례 분석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1. 메콩강 - 총연장 4,180km, 캄보디아, 라오스 등 6개국

● 주요쟁점

- 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해 유역국가들이 메콩강 개발에 소극적 반응 및 환경훼손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대

● 협력적 문제해결

- 개별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메콩강은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비슷한 여러 국가들이 공유하는 하천의 성공적인 사례로 6개국간 1995년 메콩협약 추진

● 시사점

- 국제기구(GMS: 메콩정상회의)의 협조와 참여로 국가간 소규모사업 중심의 투자유치 + 상호협력 추진



2. 라인강-총연장326km, 독일·프랑스등 7개지역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주요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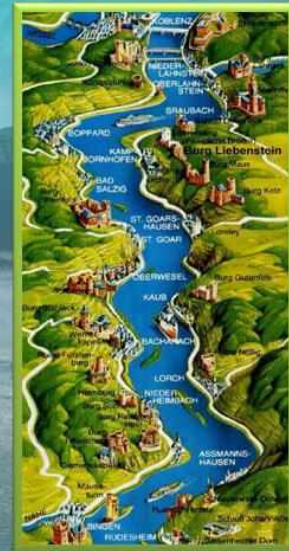
- 2차 세계대전 이후 용수사용량 증가 및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생태계 파괴 및 홍수의 위험성 증가

협력적 문제해결

- 라인강 오염과 보존을 위한 관련국들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이 최우선
- 라인강 수질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ICRP) 활용

시사점

- 상호이해에 근거한 협력 및 공동정책의 추진이 더욱 효과적임을 입증



3. 템즈강-총연장336km, 글로스터셔주 ~ 잉글랜드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주요쟁점

- 폐수로 악화된 수질개선을 위한 신규 댐 건설
- 환경 및 지역경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모델 필요

협력적 문제해결

- 2003년 Environment Agency가 계획·수립 착수, 지자체 및 주민, NGO 등 70개 이상의 그룹과 함께 계획수립, 추진

시사점

- 사회 모든 계층의 자유로운 접근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한 레저 및 관광합성화





4. 포토맥강-총연장 665km, 버지니아주~ 워싱턴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 주요쟁점

- 530만명 주민 식수원인 포토맥강의 수질오염 심각

● 협력적 문제해결

- 수질오염 해결을 위한 포토맥강 살리기 지역간
협력위원회 구성(1940년 미 연방의회 승인)

● 시사점

-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질, 환경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 국내 사례 분석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1. 한강 -(405.5km)

● 사업개요

- 1982. 9월 착공 ~ 1986. 9월 준공
- 한강의 하천공간을 종합적이고 다목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 저수로 정비를 통한 치수기능 확대, 고수부지 조성,
휴식공간 확보, 올림픽대로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 사업효과 및 한계

- 여가공간 확보 및 한강 수질 향상, 유람선 운행 가능
- 자동차 위주 설계로 인해 사람접근 한계, 쓰레기,
둔치관리 잘못으로 인한 한강오염 등 문제발생

● 시사점

- 중앙정부 주도의 물리적 하천개발의 문제점 해결 제기



2. 안양천 - (34.8km)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주요쟁점

- 다수지역 원인제공으로 수질오염의 심각성
- 자치시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폭 및 지자체장의 하천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해결 난망

협력적 문제해결

- 안양천 하천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1997.4)
 - 13개 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
 -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을 통해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 형성

시사점

- 수질오염도 감소, 규모의 경제 달성,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도모 및 광역적 동반성장 가능



3. 팔당호 - (23,800km²)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주요쟁점

- 수도권 2,300만 식수원인 팔당호의 오염
- 이를 둘러싼 7개 시군 및 중앙정부, 경기도 등 구성원들간의 견해 차이 발생

협력적 문제해결

-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정책협의회(25명), 실무위원회(20명), 소위원회(7명)
 -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위한 선진형 정책개발
 -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기존제도의 개선책 강구
 - 팔당수계 주요하천 수질개선사업 및 홍보활동 전개

시사점

- 다자간 정책협의체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 추진



4. 인천광역시 5개 하천살리기 - (송기천, 나진포천, 공촌천, 굴포천, 장수천)

● 주요쟁점

- 민/관/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하천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의 조정 요구(5개 하천)
- 효율적, 협력적인 하천관리의 필요성 공동 제기

● 협력적 문제해결

-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운영
 - 전문가, NGO, 공무원 등 총 57명의 추진위원
 - 역내 115개 NGO단체로 5개 하천별 네트워크 구성
 - 하천 아카데미 운영 및 각종 정책지원사업 추진

● 시사점

- 민-관 및 NGO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문제해결 지향



4. 결 론 :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

- 시·군간 협력방안
- 효율적, 지속가능한 협의체 운영
- 결 론



시·군간 협력방안(1)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인접 시·군간 예상되는 갈등사안

- 사업의 남발 → 상충되는 경우 시너지효과 저하
- 수질·환경오염 발생 → 비용전가(수질개선 부담금)
- 의욕만을 앞세운 사업 → 직·간접적 지역, 주민피해



갈등해소의 조건과 방법

- 단계적,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
- 사전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정례화[정책계획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 협의회 운영 내실화
 - : 상급기관 및 참여단체의 사후적 조정보다 자율적, 예방적 조율·합의 우선 원칙
-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권역별 포럼) 활용 및 지원

시·군간 협력방안(2)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상생협력

공동의 목표달성



갈등해소

최적 자원배분을 통한 가치실현

- 인접 지역간 상호보완적 사업추진(호혜주의 원칙)
- 인접지역간 공동사업, 공동이용 장려
- 시너지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배분
- 지역 현안사업 중심 접근



■ 효율적, 지속가능한 협의체 운영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1. 기본방향

● 추진목표

- 시·군간 협력적, 자율적, 조율·조정시스템 조기구축
- 다자간 참여를 통한 소통구조 확립
- 현안중심의 실질적, 효율적 운영 내실화
- 시·군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행정협의회 기능보완)



● 추진중점

- 민·관 공동 참여 협력모니터링 감시기구 상설화(cf. 월성원자력 관련)
- 지식·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비쿼터스 협력체제 고도화
- 민주적, 참여적, 숙의적 의사결정으로 합의형성 및 갈등 최소화
- 사전 예방지향적 갈등관리 시스템 조기구축

※ 금강권관광협의회 창립(2005. 5 :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 군산)

2. 시·군협의회 운영구상(안)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 운영기조

- 시·군별 협의체 구성 - 「협력담당관제도」 병행운영
- 현장위주, 실제적 접근으로 협의회 운영 내실화
- 중립성·객관성 유지, 제3자적 신뢰기반 확보

● 운영전략

- 여론수렴 및 심의과정, 정책수정·보완 및 제도화
- 워크숍, 간담회를 통한 지식·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추진
-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갈등예방 관리기능 강화

☆ 「갈등순회 매니저제도」 도입 검토 필요

- Circuit Riding Manager : 미국에서 현재 시행 중
- 과거 순회판사와 같이 순회, 지역문제에 관해 자문(컨설팅→코칭)을 통해 지자체의 갈등해소와 아이디어 제공

3. 갈등극복 시나리오(예시)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갈등상황 조기극복

참여주체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 압력 · 염상 · 조정

제한된 자원의 최적배분

[포크배럴현상]

사업의
중복·남발

치적·선심성
사업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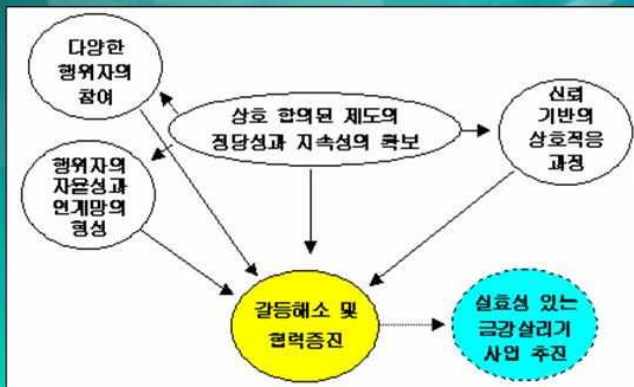
개발앞세운
환경훼손

시·군간
분담금갈등

상하류,
시·군간
분쟁

4. 갈등해소와 협력증진 간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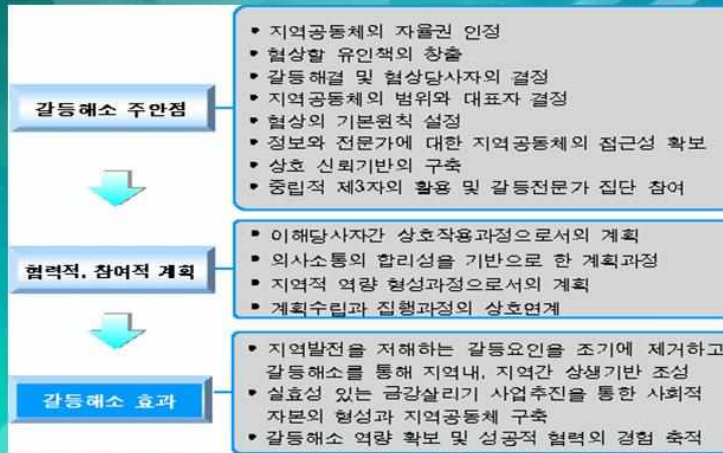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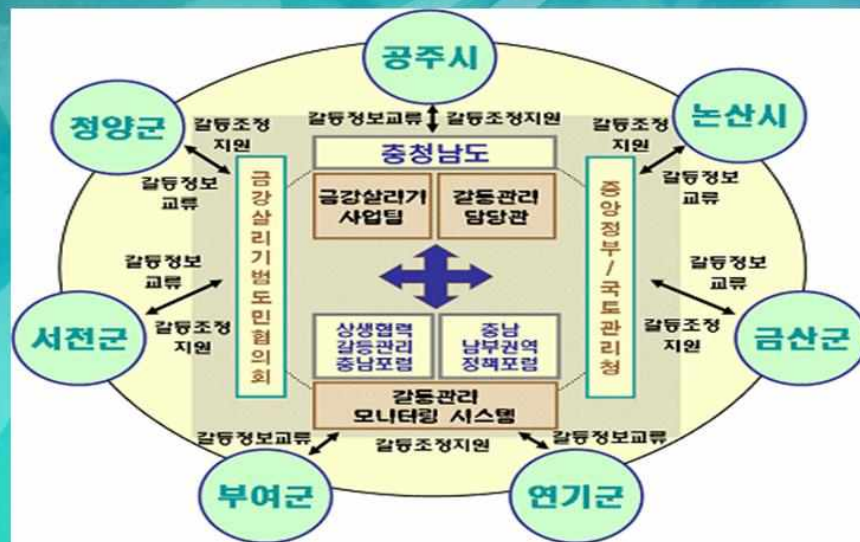
5. 갈등유형별 갈등관리 구도설정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6.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7.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순회매니저제도 도입(안)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8. 상생협력 방안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발전 실현

친수(친환경 경관향상)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

이수(상수도, 농공업용수)

자원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치수 [홍수, 가뭄조절]

7개 시·군 간 상생협력

■ 결 론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 협력거버넌스 체제 구축

● 민(民)의 역할

-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 의견수렴을 통한 바람직한 사업방향 제시
- 지역현안에 대한 요구, 감시, 지원, 협력
- 협의회를 통한 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

● 관(官)의 역할

- 도, 시·군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지원
- 갈등시 자율적 참여, 조정, 협력, 합의형성
- 사업 형평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고려
- 대외협력 및 지원강화(충남포럼/권역별포럼)



■ 결 론

금강살리기사업의 갈등유형분석 및 관리방향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 협력거버넌스 체제 구축

● 산(産), 학(學), 연(硏), 언(言)의 역할

- 지역친화적, 공익사업 참여 촉진
- 친환경적 자원활용 극대화
- 고용확대, 지역경제 살리기 연계
-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병행
- 전문가 참여, 정책대안 발굴
- 설명회, 워크숍, 현장학습 등 개최
-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 강화
- 협력,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신장





【부 록 1】

2010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현황

충청남도(치수방재과)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0. 2. 2

『금강살리기사업』 추진현황



충청남도

『금강살리기사업』 추진현황

1 총괄계획 (Master Plan)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4 대 강 총 괄		금 강				비율 (%) (4대강/금강)
		사업량	사업비	총 괄		우리 道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69,498		24,727		17,130	15.0
국 토 해양부	소 계		136,794		16,598		13,741	
	하도정비·준설	5.7억 m³	51,599	0.5억 m³	3,720	0.40억 m³	3,055	
	보 설 치	16개소	15,091	3개소	2,023	3개소	2,023	
	생태 하천 조성	154/537km	21,786	41/124km	5,772	27/106km	4,964	
	제 방 보 강	85/377km	9,309	26/71km	2,371	14/29km	1,182	
	자 전 거 도 로	1,206km	1,409	248km	303	192km	272	
	양배수장 등 기타	1식	17,038	1식	2,409	1식	2,245	
	댐	3개소	12,056					
	홍수조절지,기타	7개소	8,506					
농림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88개소	27,704	30개소	6,767	11개소	2,689	
환경부	수 질 대 책	353개소	5,000	99개소	1,362	33개소	700	

*총계획 169,498억원[한강20,435(12%), 낙동강97,875(58%), 영산강 26,461(15%)]



2 지구별 사업계획

(단위 : km · 억원)

지구별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하천 정비	보 설치	생태하 천조성	제방 보강	자전 거 도로	계	보상 비	공사 비	
합계(9)	대전청5개, 충남도 4개	110.4	3개 소	107.2	29.2	192.0	17,130	3,402	13,728	
행복도 시 구 간	연기, 금남, 송원 ~ 연기, 동 면, 합강 (L=13.0 km)	12.04	1	17.00	17.99	30.00	2,045		2,045	'09. 6. 착 공
청남지 구 (6공구)	부여, 부여, 구교 ~ 공주, 이 인, 운암 (L=17.33 km)	17.33	1	17.51		38.48	2,960	282	2,678	'09.10. 착 공
공주지 구 (7공구)	공주, 이인, 운암 ~ 공주, 반 포, 원봉 (L=26.3 km)	26.30	1	5.79		46.20	1,711	25	1,686	“
서천지 구 (1공구)	서천, 마서, 도삼 ~ 부여, 세 도, 간대 (L=30.0 km)	29.57		9.10	5.33	29.01	1,045	46	999	'10. 2. 착 공
부여지 구 (5공구)	부여, 부여, 현북 ~ 부여, 부 여, 구교 (L=9.08 km)	9.08		17.80	5.89	19.89	2,114	854	1,260	“
강경지 구 (3공구)	부여, 세도, 간대 ~ 논산, 성 동, 우곤 (L=8.65 km)	8.65		15.86		18.70	1,924	854	1,070	'10. 3 착 공 예 정
장암지 구 (4공구)	논산, 성동, 우곤 ~ 부여, 부 여, 현북 (L=7.43 km)	7.43		8.80		9.80	812	299	513	“
대청지 구 (8공구)	충북, 옥천, 동이 ~ 금산, 부 리, 수통 (L=70.0 km)			10.62			304	75	229	“
미호지 구 (9공구)	연기, 동면, 문주 ~ 연기, 동 면, 예양 (L=4.78 km)			4.78			171	40	131	“
농업용 저수지	11지구(저수지 증고사 업)	- 1단계(4)설계승인 : 계룡, 용암, 도립, 복 심, - 2단계(7)설계중(장안, 용연, 한천, 중흥, 탑정 찬장)					2,689	927	1,762	농 촌 공 사 시행중
수질대 책	금강본류	비점 오염원 처리 등					700		700	추정액
기타사 업	설계 및 부대비						655		655	



3

추진경위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발전 종합대책 발표(16조원)
: '08.12.15
- 부여생계대책위 과천 정부청사 앞 집회 : '09. 5. 6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 '09. 6. 8
- 선도사업 행복지구 착공 : '09. 6.12(대전청-공사중)
- 『금강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개최(7개시.군) : '09.
7.17~10.22
- 생계대책위 도지사 면담을 위한 방문 : '09. 7.18
-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회의 참석(4대강추진본부) :
'09. 7.21
- 겨울철 영농준비위해 보상비 일괄 전액 지급건의
- 보상관련 부여군수와 부여생계대책위원회간 협약식 체결 :
'09. 7. 27
- 청남(6공구), 공주(7공구)지구 착공 : '09. 10.5(대전청-
공사중)

4

추진상황

- 업무분담(9개공구)
 - 실시설계 : 대전청
 - 공사추진 : 대전청 5개 공구, 충남도 4개공구
- 사업추진
 - 행복지구 : '09.6.12 착공, 보 가물막이, 고수부지공사 등
14%추진
 - 턴키방식 : 1차('09.6.29 발주/'09.10.5착공) - 6·7공구(공주
-5.1%청남5.0%추진)



(대전청시행) 2차('09.10.19 발주/'10.2월 착공) - 1·5공구(서천,부여)

- 일반공사 : 1차('09.7. 설계착수/ '10.3월 착공예정) - 4·8·9공구
(장암대청미호)

(충남도시행) 2차('09.7. 설계착수/ '10.3월 착공예정) - 3공구
(강경)

※ 사업 완료시기

- 준설 · 보설치 ·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 '11년까지 완료
- 지류 · 댐 · 저수지사업 등 -- '12년까지 완료
- 4대강 이외의 국가 및 지방하천사업은 '10년까지 종합계획 수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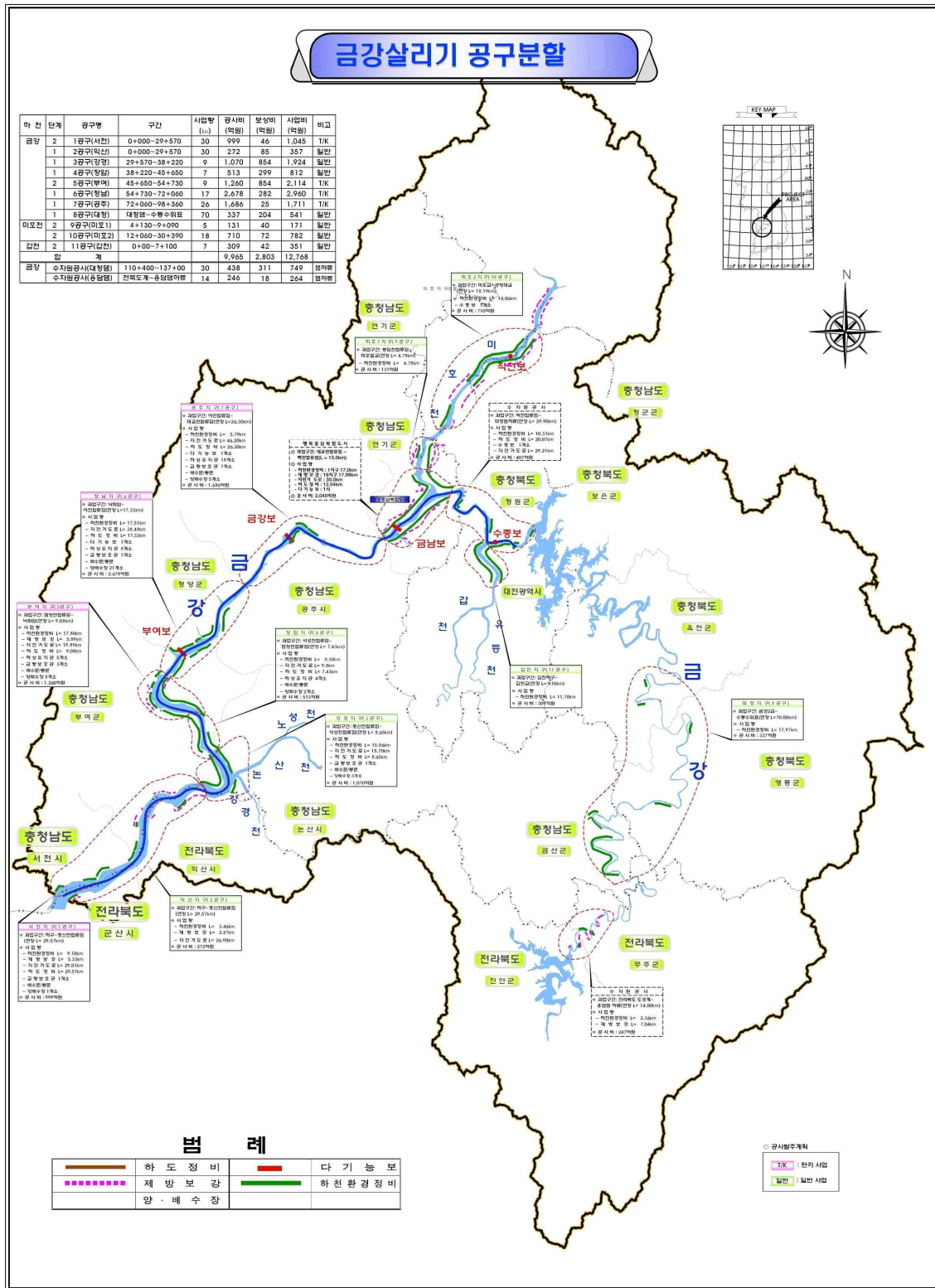
○ 보상추진

- 보상주체 : 7개 시군 보상 추진중(토지주택공사 부여군 제외참여)
- 보상대상 : 17,369건(4,892명) 21,626천㎡, 보상비 : 2,475억원
(1,191억원 확보 1,031억원 지출 90% - 부여군 933억원 94%)



5

사업계획(공구)평면도



【부 록 2】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최병학 외, 2009년도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에서 발췌

(2009. 12. 31)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분석의 틀

본 실태조사는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모두 5가지 갈등유형별로 예상되는 갈등소지에 따른 해결방안”을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살펴보려는 데 있다.

첫째, 갈등유형(Ⅰ) : 행위주체별 갈등 → 정부간 갈등(중앙↔광역시, 중앙↔기초, 광역↔기초, 기초↔기초/시군간), 정부와 주민간 갈등(중앙↔주민, 광역↔주민, 기초↔주민, 중앙/광역/기초↔NGO단체 등)

둘째, 갈등유형(Ⅱ) : 사업내용별 갈등 → 하천개발(용수이용, 농지보상, 수중보 설치, 준설작업, 수질보전, 상하류간 갈등, 상수원보호), 광역시설(기념관 설치, 도로개설, 펌비/님비시설, 개발사업(민간 및 관광개발), 선도산업 유치경쟁 및 유사/중복사업 추진 갈등

셋째, 갈등유형(Ⅲ) : 갈등성격별 갈등 → 이익갈등(펌비/님비, 재산/기득권 유지, 보상갈등, 골재채취, 역사문화 보존 관련 공익적 가치추구간 갈등), 권한갈등(수질정화 비용분담, 권한/권리 마찰 등)

넷째, 갈등유형(Ⅳ) : 표출양상별 갈등 → 잠재적 갈등(갈등조건 내재화, 외형상 감추어진 갈등), 현재적 갈등(갈등당사자의 불만/경쟁 외부로 표출)

다섯째, 갈등유형(Ⅴ) : 쟁점범위별 갈등 → 공간적 범위(지역내/지역간 갈등), 계층적 범위(일반주민 대상, 특정계층 대상)

갈등유형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인식관련),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2.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조사

설문조사지는 예비조사 등을 거쳐 총 3회 수정·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별 갈등해소와 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시·군 중심으로 설문조사 약 75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금강권역 7개 시·군(공주, 논산, 금산, 연기, 청양, 부여, 서천)을 중심으로 2009년 7월 15일에서 2009년 7월 31일까지(약 2주간)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2 통계패키지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750여명 대상 설문 배포, 실제 분석에는 694부의 설문을 사용(사용률 : 92.5%)하였고,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등을 활용하였다.

2) 인터뷰 조사

인터뷰 조사는 설문조사지 중에서 핵심내용을 추출, 비표준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과 갈등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군별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의 현장간담회 개최와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재학중 포함), 직업, 직급(공무원 대상), 담당분야(공무원 대상), 월 평균 소득수준, 거주지(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남녀분포는 남성이 62.8%, 여성이 37.2%이며, 조사대상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4.8%, 30대가 29.0%, 40대가 31.4%, 50대가 19.2%, 60대 이상이 5.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33.8%, 전문대졸이 15.2%, 대졸이 39.0%, 대학원졸이 2.9%, 기타가 9.0%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임업포함)이 14.3%, 상업·서비스업이 13.0%, 제조업이 1.6%, 회사원이 12.4%, 기술직이 3.5%, 노무직이 0.1%, 전문직이 5.3%, 종교·사회봉사가 0.9%, 언론이 0.1%, (대)학생이 5.3%, 공무원이 31.7%, 전업주부가 6.8%, 퇴직·무직이 1.2%, 프리랜서가 0.9%, 기타가 2.9%이었다.

조사대상 중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직급을 살펴보면 7급 이하가 60.5%, 6급이 21.8%, 5급이 2.7%, 별정직은 0.9%, 전문직은 1.4%, 기능직은 10.5%, 기타가 2.3%이었으



며, 조사대상 중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담당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48.9%, 기획·정책이 3.7%, 경제통상이 3.2%, 문화관광이 5.5%, 복지환경이 7.8%, 농림수산이 4.1%, 건설교통(치수방재)이 9.6%, 소방안전(재난관리)이 7.3%, 갈등예방관리(사회통합·상생협력)가 1.8%, 교육·연구가 1.8%, 기타가 6.4%이었다.

조사대상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12.6%, 50~100만원이 11.8%, 101~150만원이 19.2%, 151~200만원이 18.9%, 201~300만원이 23.0%, 301~400만원이 9.4%, 401~500만원이 3.5%, 501만원 이상이 1.8%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의 거주지(지역)을 살펴보면 금강권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공주시가 10.8%, 논산시가 14.7%, 금산군이 13.1%, 연기군이 14.1%, 부여군이 11.0%, 서천군이 14.6%, 청양군이 15.6%, 그 밖의 천안시가 0.7%, 보령시가 0.4%, 아산시가 0.1%, 계룡시가 0.7%, 홍성군이 0.1%, 예산군이 0.3%, 기타가 3.6%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빈도(명)	유효퍼센트(%)
성별	남자	435
	여자	258
	무응답	1
	합계	694
연령	20대	103
	30대	201
	40대	218
	50대	133
	60대 이상	39
	합계	694
학력(재학중 포함)	고졸	233
	전문대졸	105
	대졸	269
	대학원졸	20
	기타	62
	무응답	5
	합계	694
직업	농업(임업포함)	99
	상업·서비스업	90
	제조업	11
	회사원	86
	기술직	24
	노무직	1
	전문직	37
	종교·사회봉사	6
	언론	1
	(대)학생	37
	공무원	220
	전업주부	47
	퇴직·무직	8



	프리랜서	6	0.9
	기타	20	2.9
	무응답	1	
	합계	694	100.0
직급(공무원 대상)	7급이하	133	60.5
	6급	48	21.8
	5급	6	2.7
	별정직	2	0.9
	전문직	3	1.4
	기능직	23	10.5
	기타	5	2.3
	합계	220	100.0
담당분야(공무원대상)	일반행정	107	48.9
	기획·정책	8	3.7
	경제통상	7	3.2
	문화관광	12	5.5
	복지환경	17	7.8
	농림수산	9	4.1
	건설교통(치수방재)	21	9.6
	소방안전(재난관리)	16	7.3
	갈등예방관리	4	1.8
	교육·연구	4	1.8
	기타	14	6.4
	무응답	1	
	합계	220	100.0
월평균 소득수준	50만원 미만	86	12.6
	50~100만원	81	11.8
	101~150만원	131	19.2
	151~200만원	129	18.9
	201~300만원	157	23.0
	301~400만원	64	9.4
	401~500만원	24	3.5
	501만원 이상	12	1.8
	무응답	10	
	합계	694	100.0
거주지(지역)	천안시	5	0.7
	공주시	75	10.8
	보령시	3	0.4
	아산시	1	0.1
	논산시	102	14.7
	계룡시	5	0.7
	금산군	91	13.1
	연기군	98	14.1
	부여군	76	11.0
	서천군	101	14.6
	청양군	108	15.6
	홍성군	1	0.1
	예산군	2	0.3
	기타	25	3.6
	무응답	1	
	합계	694	100.0



3.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1)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인식관련)

(1)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현재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과 금강권역 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우 잘 알고 있음이 7.2%, 잘 알고 있음이 27.5%, 보통이 41.3%, 잘 모름이 21.0%, 전혀 모름이 2.9%로 나타났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34.7%로서 모르겠다는 의견의 23.9% 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41.3%로 조사되어 아직까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알고 있음	50	7.2
잘 알고 있음	190	27.5
보통	285	41.3
잘 모름	145	21.0
전혀 모름	20	2.9
무응답	4	
합계	694	100.0

(2)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금강살리기」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그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우 찬성하여 현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4%, 찬성하지만 사업계획의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8.6%, 모르겠다는 중도적인 의견이 25.0%, 반대함으로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8.4%, 매우 반대함에 따라 사업중단 및 계획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6%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찬성의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46.0%로서 반대의 부정적 의견의 29.0% 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사업자체의 중단 및 계획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살리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시점에서부터 갈등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표 3>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매우찬성 (현 사업계획대로 추진 필요)	51	7.4
찬성 (사업계획 부분 조정 필요)	266	38.6
모르겠음	172	25.0
반대 (사업계획 전면 수정 필요)	127	18.4
매우반대 (사업중단 및 계획 폐지 필요)	73	10.6
무응답	5	
합계	694	100.0

(3)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발전 공헌 여부

「금강살리기」 사업이 충남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3%,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5.9%, 보통이라는 의견이 31.5%,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18.8%,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6.5%로 조사되었다.

<표 4>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발전 공헌 여부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됨	49	7.3
도움이 됨	241	35.9
보통	212	31.5
도움 안 됨	126	18.8
전혀 도움 안 됨	44	6.5
무응답	22	
합계	694	100.0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43.2%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의 25.3%보다 높게 나타나,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이 지역발전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알 수 있었다.



(4) 「금강살리기」 사업내용의 만족도(필요성)

① 용수공급능력 1.0억톤 증대를 위한 보(부여보, 금강보, 금남보) 설치와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31개)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

「금강살리기」 사업의 사업내용 중 용수공급능력의 1.0억톤 증대를 위한 보 설치,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에 대한 만족(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이 12.7%, 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이 30.6%, 보통이라는 의견이 33.5%, 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이 17.0%, 매우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이 6.3%로 나타났다.

전체의 43.3%가 만족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체의 23.3%가 불만족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표 5> 보설치,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에 대한 만족(필요)여부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매우만족(매우필요)	87	12.7
만족(필요)	209	30.6
보통	229	33.5
불만족(불필요)	116	17.0
매우불만족(매우불필요)	43	6.3
무응답	10	
합계	694	100.0

이러한 결과는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의 농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며, 「금강살리기」 사업에 거는 기대를 알 수 있다.

② 2012년 금강 본류 2급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197km), 농경지 정리(30.1km²)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

「금강살리기」 사업의 사업내용 중 2012년 금강 본류 2급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197km), 농경지 정리(30.1km²) 등에 대한 만족(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이 18.9%, 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이 35.4%, 보통이라는 의견이 29.1%, 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이 11.1%, 매우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이 5.4%로 나타났다.

전체의 54.3%가 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체의 16.5%가 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표 6> 하수처리시설확충, 생태하천조성, 농경지 정리에 대한 만족(필요) 여부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매우만족(매우필요)	129	18.9
만족(필요)	242	35.4
보통	199	29.1
불만족(불필요)	76	11.1
매우불만족(매우불필요)	37	5.4
무응답	11	
합계	694	100.0

이러한 결과는 금강권역 주민들의 금강의 환경적 차원의 수질 개선 및 정화노력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길 설치(204km),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옛 뱃길복원(백제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필요성)

「금강살리기」 사업의 사업내용 중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길 설치(204 km),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옛 뱃길복원(백제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매우필요)한다는 의견이 19.5%, 만족(필요)한다는 의견이 31.7%, 보통이라는 의견이 28.9%, 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이 13.8%, 매우불만족(불필요)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표 7> 자전거길 설치, 옛 뱃길복원에 대한 만족(필요) 여부

문항	빈도(명)	유효 퍼센트(%)
매우만족(매우필요)	133	19.5
만족(필요)	216	31.7
보통	197	28.9
불만족(불필요)	94	13.8
매우불만족(매우불필요)	42	6.2
무응답	12	
합계	694	100.0

전체의 51.2%가 만족(필요)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어, 전체의 20.0%의 불만족(불필요)을 나타낸 부정적인 의견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문화유



산 확충등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되며, 추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

(1)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갈등의 당사자(행위주체)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요인 중 어떠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중앙(자치단체)와 NGO(시민·사회단체)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21.8%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20.6%, 주민-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19.6%, 자치단체(시·군)간의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18.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요인 중 어떠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농업(임업) 종사자와 공무원, 그리고 나머지 직업종사자를 주민으로 묶어서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의 빈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자치단체)-NGO단체 간, 주민-자치단체 간, 주민-중앙정부 간의 항목에서 행위주체 간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중앙(자치단체)와 NGO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은 「금강살리기」 사업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추진시에 NGO의 반대가 항상 표출되었으며, NGO의 무조건적인 반대나 대안 없는 비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8>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자치단체	108	15.7
자치단체(시·군)간	129	18.7
중앙(자치단체)-NGO단체	150	21.8
주민-중앙정부	142	20.6
주민-자치단체	135	19.6
주민-주민	18	2.6
기타	7	1.0
무응답	5	
합계	694	100.0



한편, 이러한 결과를 주민간, 주민-정부간, 정부간 갈등 유발 여부로 재정리해 보면,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이 62%로 가장 갈등이 심하게 유발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시·군간) 갈등도 34.4%로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주체로 나타났다.

<표 9>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주민간, 주민-정부간, 정부간]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주민상호간	18	2.6
주민(NGO)-정부(지방자치단체)	427	62.0
중앙정부-자치단체(시·군간)	237	34.4
기타	7	1.0
무응답	5	
합계	694	100.0

농업(임업) 종사자 집단에서 주민과 중앙정부, 주민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 역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농민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민집단에서 자치단체(시·군)간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금강권역 7개 시·군간의 강력한 협력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10> 직업군에 따른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 교차분석

항목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중앙정부-자치단체	23	63	21	107
자치단체(시·군)간	12	86	31	129
중앙(자치단체)-NGO단체	7	65	78	150
주민-중앙정부	24	84	34	142
주민-자치단체	30	52	53	135
주민-주민	3	15	0	18
기타	0	6	1	7
전체	99	371	218	688

χ^2 : 80.067, df: 12, 유의확률: 0.00

한편, 이러한 결과를 주민간, 주민-정부간, 정부간 갈등 유발 여부로 재정리해 보면, 공통적으로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의 직업군에 있어서도 주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의 갈등에 대해 갈등이 심하게 유발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직업군에 따른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 교차분석[주민간, 주민-정부간, 정부간]

항목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주민상호간	3	15	0	18
주민(NGO)-정부(지방자치단체)	61	201	165	427
중앙정부-자치단체(시·군·구)	35	149	52	236
기타	0	6	1	7
합계	99	371	218	688

χ^2 : 80.067, df: 12, 유의확률: 0.00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요인 중 어떠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인가에 대하여 거주지(지역)에 따라 금강권역 7개 시·군(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과 기타지역으로 묶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시·군 지역에 따라 근소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주시의 경우에는 중앙(자치단체)-NGO단체, 자치단체(시·군)간의 순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조사되었으며, 논산시의 경우에는 주민-중앙정부, 중앙(자치단체)-NGO단체 순으로, 금산군의 경우에는 주민-자치단체, 중앙(자치단체)-NGO단체 순으로, 연기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시·군)간, 중앙(자치단체)-NGO단체 순으로, 부여군의 경우에는 주민-자치단체, 주민-중앙정부 순으로, 서천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시·군)간, 중앙(자치단체)-NGO단체 순으로, 청양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중앙(자치단체)-NGO단체 순으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중앙정부, 주민-자치단체,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세도면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변 경작지 비율이 가장 높아 보상비 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부여군의 경우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 주민과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천군의 경우 군산시와의 금강하구둑 철거 문제 등 사업 시행 전부터 갈등이 표출된 것이 반영된 듯 자치단체(시·군)간의 갈등, 중앙(자치단체)-NGO단체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기군의 경우도 행복지구 관련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자치단체(시·군)간 갈등과 중앙(자치단체)-NGO단체간의 갈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시·군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표 12> 거주지(지역)에 따른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 교차분석

항 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 타	
중앙정부-자치단체	12	6	13	15	7	19	28	8	108
자치단체(시군)간	16	8	17	24	5	31	22	5	128
중앙(자치단체)-NGO 단체	22	28	19	22	6	21	25	7	150
주민-중앙정부	9	34	15	19	22	18	13	12	142
주민-자치단체	12	24	22	14	35	6	14	8	135
주민-주민	1	2	3	2	0	5	3	2	18
기타	1	0	0	1	1	1	3	0	7
전체	73	102	89	97	76	101	108	42	688

χ^2 : 125.100, df: 42, 유의확률: 0.00

<표 13> 거주지(지역)에 따른 행위주체간 갈등 여부 교차분석[주민간, 주민-정부간, 정부간]

항 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 타	
주민상호간	1	2	3	2	0	5	3	2	18
주민(NGO)-정부 (지방자치단체)	43	86	56	55	63	45	52	27	427
중앙정부-자치단체 (시·군간)	28	14	30	39	12	50	50	13	236
기타	1	0	0	1	1	1	3	0	7
합계	73	102	89	97	76	101	108	42	688

χ^2 : 125.100, df: 42, 유의확률: 0.00

한편, 이러한 결과를 <표 IV-13>과 같이 주민간, 주민-정부간, 정부간 갈등 유발 여부로 재정리한 결과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정부간의 갈등의 주요 갈등유발요인으로 조사되었으나, 서천군의 경우에만 근소한 차이로 중앙정부-자치단체(시·군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유발 주체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2)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갈등 예상 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서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설작업사업이 17.5%, 보설치 사업이 14.7%, 댐·조절지 건설사업이 10.8%, 관광위락시설사업이 10.2%, 수질개선사업이 6.6%,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5.5%, 제방보강사업이 2.2%, 자전거길 조성사업



이 0.7%의 순으로 갈등이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갈등 예상 사업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준설작업	120	17.5
보 설치	101	14.7
생태하천복원	199	29.0
관광위락시설	70	10.2
제방보강	15	2.2
댐, 조절지 건설	74	10.8
자전거길 조성	5	0.7
농업용 저수지 증고	38	5.5
수질개선	45	6.6
기타	20	2.9
무응답	7	
합계	694	100.0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사업에 대해 농업(임업) 종사자와 공무원, 그리고 나머지 직업종사자를 주민으로 묶어서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갈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2순위로 농업(임업), 주민 집단에서는 준설작업이 갈등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무원 집단에서는 보 설치에 따른 갈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장 높게 조사된 이유는 각 시·군 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연계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과 예산배분의 문제, 금강변의 불법 점유 경작지 문제 등에 있어 이미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사업에 대하여 거주지(지역)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강권역 7개 시·군과 기타지역간의 의견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천군의 경우에는 준설작업 및 보 설치 사업에서 갈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된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갈등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직업군에 따른 갈등 예상 사업의 교차분석

항목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			전 체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준설작업	19	73	28	120
보 설치	10	40	50	100
생태하천복원	30	118	51	199
관광위락시설	6	36	28	70
제방보강	5	7	3	15
댐, 조절지 건설	8	40	26	74
자전거길 조성	0	3	2	5
농업용 저수지 증고	13	22	3	38
수질개선	5	26	14	45
기타	1	7	12	20
전체	97	372	217	686

χ^2 : 58.097, df: 18, 유의확률: 0.00

<표 16> 거주지(지역)에 따른 갈등 예상 사업의 교차분석

항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 타	
준설작업	6	11	11	24	10	26	24	8	120
보 설치	19	11	8	18	11	17	11	5	100
생태하천복원	21	37	33	27	20	16	32	13	199
관광위락시설	11	9	9	13	8	10	8	2	70
제방보강	0	6	0	1	6	0	2	0	15
댐, 조절지 건설	10	7	16	10	5	8	13	5	74
자전거길 조성	0	1	2	0	1	1	0	0	5
농업용 저수지 증고	3	12	0	3	2	7	8	3	38
수질개선	4	5	9	2	3	11	7	4	45
기타	0	3	1	0	9	4	1	2	20
전체	74	102	89	98	75	100	106	42	686

χ^2 : 138.190, df: 63, 유의확률: 0.00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천군의 경우 금강하구둑 철거 문제 등 실질적인 용수공급능력 및 확보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파악되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필요성 및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단순한 관광레저타운 조성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3)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영향정도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의 원인 중에서 그 원인의 영향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 주어진 항목에 대해 대체로 갈등의 영향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보상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매우 크다는 의견이 34.6%, 다소 크다는 의견이 39.5%, 보통이라는 의견이 22.8%, 다소 적다는 의견이 2.5%, 매우 적다는 의견이 0.6%로 조사되어, 농지보상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가 크다는 의견이 전체의 74.1%나 차지하였으며, 또한 소유권(재산) 유지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 역시 매우 크다는 의견이 31.6%, 다소 크다는 의견이 37.5%, 보통이라는 의견이 24.9%, 다소 적다는 의견이 4.7%, 매우 적다는 의견이 1.3%로서, 소유권(재산) 유지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가 크다는 의견이 전체의 69.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 사업 추진 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높은 부분은 농지보상이나 재산권에 관한 것임을 입증해 주는 좋은 설문 결과라 사료된다.

<표 17>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영향정도

항 목	매우 큼	다소 큼	보 통	다소 적음	매우 적음
	유효 퍼센트(%)				
용수이용에 따른 갈등	14.9	35.2	40.5	7.0	2.4
농지보상에 따른 갈등	34.6	39.5	22.8	2.5	0.6
상·하류간 갈등	17.3	41.6	35.5	4.4	1.2
님비(혐오)시설에 따른 갈등	24.6	34.3	32.3	6.8	1.9
땀피(선호)시설에 따른 갈등	18.9	32.6	40.5	5.8	2.1
유사·중복사업에 따른 갈등	12.8	35.4	42.1	8.7	1.0
수중보 설치에 따른 갈등	18.0	37.9	37.7	5.1	1.3
소유권(재산) 유지에 따른 갈등	31.6	37.5	24.9	4.7	1.3
골재채취관련 갈등	24.9	33.9	33.2	6.0	2.1
역사·문화 보존에 관한 갈등	22.3	34.0	33.4	6.8	3.4
수질정화 비용분담에 따른 갈등	25.4	39.6	29.1	4.3	1.6
권한 및 권리에 관한 갈등	25.8	37.8	31.3	3.9	1.3

* 일부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퍼센트 결과임



(4)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표출형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의 표출형태를 잠재적 갈등(갈등조건이 내재화 되어 있으며, 외형상 감추어진 갈등)과 현재적 갈등(갈등당사자의 불만·경쟁이 외부로 표출되는 갈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현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69.5%로 잠재적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의 29.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8>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표출형태

항 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잠재적 갈등 (갈등조건 내재화, 외형상 감추어진 갈등)	202	29.4
현재적 갈등 (갈등당사자의 불만, 경쟁이 외부로 표출)	478	69.5
기 타	8	1.2
무응답	6	
합계	694	100.0

위의 빈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군을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모든 직업군에서 현재적 갈등의 형태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문제는 현재적 갈등으로서 갈등당사자의 불만이나 경쟁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19> 직업군에 따른 갈등의 표출형태 교차분석

항 목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			전 체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잠재적 갈등 (갈등조건 내재화, 외형상 감추어진 갈등)	33	114	55	202
현재적 갈등 (갈등당사자의 불만, 경쟁이 외부로 표출)	64	250	163	477
기타	2	6	0	8
전체	99	370	218	687

χ^2 : 7.293, df: 4, 유의확률: 0.121

거주지(지역)에 따른 갈등의 표출형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공주시를 비롯한 금강권역 7개 시·군 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을 포함한 충남도내 모든 시·군은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재적 갈등으로서 갈등당사자의 불만이나 경쟁이 외부로 표출될 것이라는 의견에 관심을 기울였다.

<표 20> 거주지(지역)에 따른 갈등의 표출형태 교차분석

항 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교차분석								전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 타	
잠재적 갈등 (갈등조건 내재화, 외형상 감추어진 갈등)	14	41	30	23	18	32	32	12	202
현재적 갈등 (갈등당사자의 불만, 경쟁이 외부로 표출)	58	57	58	73	57	69	75	30	477
기타	2	4	0	0	1	0	1	0	8
전체	74	102	88	96	76	101	108	42	687

χ^2 : 26.199, df: 14, 유의확률: 0.024

(5)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발생범위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의 발생범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금강살리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시·군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또한 일반주민 대상 갈등이 19.2%로 특정계층 대상 갈등의 15.7%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됨으로써 「금강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갈등은 특정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 주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1>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발생범위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지역내 갈등	136	19.8
지역간(시·군)갈등	300	43.6
일반주민 대상 갈등	132	19.2
특정계층 대상 갈등	108	15.7
기타	12	1.7
무응답	6	
합계	694	100.0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업군에 따른 예상 갈등의 발생범위를 교차분석한 결과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직업군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의 경우에는 농업(임업)집단과 주민집단에서는 지역내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조사된 반면, 공무원집단의 일반주민 대상 갈등이 많을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2> 직업군에 따른 예상 갈등의 발생범위 교차분석

항 목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			전 체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지역내 갈등	26	81	29	136
지역간(시군)갈등	40	168	92	300
일반주민 대상 갈등	13	68	50	131
특정계층 대상 갈등	18	44	46	108
기타	2	10	0	12
전체	99	371	217	687

χ^2 : 25.465, df: 8, 유의확률: 0.001

거주지(지역)에 따른 예상 갈등의 발생범위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지역간(시·군) 간 갈등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부여군의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지역 내 갈등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논산시의 경우에는 일반주민 대상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 거주지(지역)에 따른 예상 갈등의 발생범위 교차분석

항 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교차분석								전 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 타	
지역내 갈등	15	21	11	20	22	20	21	6	136
지역간(시군)갈등	38	25	37	51	20	57	57	14	299
일반주민 대상 갈등	11	31	22	14	17	15	10	12	132
특정계층 대상 갈등	9	23	14	12	15	9	17	9	108
기타	1	1	4	0	2	0	3	1	12
전체	74	101	88	97	76	101	108	42	687

χ^2 : 66.813, df: 28, 유의확률: 0.00

3)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1)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주체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 「금강살리기」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주체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자치단체장	125	18.0
지방의회	38	5.5
담당공무원	26	3.8
시민단체	87	12.6
언론	28	4.0
중앙정부	217	31.3
광역단체(도)	29	4.2
기초단체(시군)	51	7.4
주민대표	31	4.5
전문가 및 중재조직	55	7.9
기타	6	0.9
무응답	1	
합계	694	100.0

중앙정부가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치단체장이라는 의견이 18.0%, 시민단체라는 의견이 12.6%, 전문가 및 중재조직이라는 의견이 7.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빈도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임업) 집단, 공무원 집단, 주민집단 모두에서 중앙정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2순위의 경우 농업(임업), 주민집단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공무원 집단에서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25> 직업군에 따른 갈등해결의 주체 교차분석

항 목	직업군에 따른 교차분석			전 체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자치단체장	19	91	15	125
지방의회	8	26	4	38
담당공무원	8	7	11	26
시민단체	5	57	25	87
언론	1	16	11	28
중앙정부	36	93	87	216
광역단체(도)	1	10	18	29
기초단체(시군)	9	19	23	51
주민대표	5	17	9	31
전문가 및 중재조직	7	32	16	55
기타	0	5	1	6
전체	99	373	220	692

χ^2 : 82.791, df: 20, 유의확률: 0.00



이러한 결과는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러 주민들을 접했을 때 이미 이러한 결과를 추측할 수 있었는데,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농민, 주민, 공무원들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의 일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따라서 중앙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러한 성향이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치단체장, 시민단체, 전문가 및 중재조직의 갈등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결과는 「금강」의 주인인 주민들은 갈등을 지역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하길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며, 민·관·산·학·연·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같은 중재조직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갈등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거주지(지역)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금강권역 7개 시·군과 기타 지역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갈등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지역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갈등해결의 주체라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공주시와 기타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해결 주체로서의 중요성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갈등요인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기군과 서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갈등해결을 위한 중요 주체라는 의견과 중앙정부가 중요 주체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치단체장의 갈등해결의지와 노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당부와 기대가 내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거주지(지역)에 따른 갈등해결의 주체 교차분석

항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교차분석								전 체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 타	
자치단체장	10	11	12	25	8	25	27	6	124
지방의회	6	0	1	8	4	10	7	2	38
담당공무원	7	3	2	3	2	5	2	2	26
시민단체	15	15	6	20	3	7	13	8	87
언론	4	1	7	1	4	6	2	3	28
중앙정부	15	42	34	25	33	24	35	9	217
광역단체(도)	3	5	5	3	0	7	2	4	29
기초단체(시·군)	8	7	10	5	9	5	7	0	51
주민대표	1	6	5	3	6	4	5	1	31
전문가 및 중재조직	6	10	6	5	7	8	7	6	55
기타	0	2	2	0	0	0	1	1	6
전체	75	102	90	98	76	101	108	42	692

χ^2 : 122.507, df: 70, 유의확률: 0.00



(2)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방안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대상자들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방안이 하나하나 다 선결되어야만 갈등을 예방·중재·조정을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철저한 사전조사, 합의형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추진, 공동의 목표설정,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철저한 사전조사는 매우중요하다는 의견이 53.3%, 중요하다는 의견이 32.2%로 나타나 전체의 85.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중요함을 나타낸 결과라 사료된다.

<표 27>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방안

항목	매우 중요	중요	보 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유효 퍼센트 (%)				
공동의 목표설정	36.0	44.2	17.4	1.6	0.7
합의형성	34.8	47.2	16.1	1.6	0.3
다자간 참여와 소통	35.3	44.2	18.1	1.8	0.6
역할분담	23.5	46.4	26.4	3.1	0.6
책임공유	29.2	41.4	25.4	2.8	1.2
최적 자원배분을 통한 가치실현	24.8	42.0	28.8	3.5	0.9
인접지역간 상호보완적 사업추진 (공동사업, 공동이용 장려, 상호이익고려)	27.3	40.9	27.8	3.3	0.7
사·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배분	21.7	39.5	31.1	7.0	0.7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접근	24.2	41.5	28.6	5.3	0.5
갈등지역간의 관계 개선 노력	34.4	41.4	21.4	2.4	0.4
용수 수급관리	26.0	42.2	27.5	3.6	0.7
상호 신뢰 및 협력강화	35.1	39.4	21.3	3.3	0.9
철저한 사전조사	53.3	32.2	12.2	1.6	0.6
정보 및 자료의 공유	40.4	36.8	19.8	2.2	0.7
유역 전체의 종합적 관리	32.6	41.0	24.1	1.9	0.4
다양한 협력, 조정기구와의 연계	29.2	41.8	25.0	3.4	0.6
민간·자본·외국적 자본 유치 등 다각적 사업추진	20.7	34.4	34.1	7.3	3.4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23.3	41.7	28.0	5.5	1.5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추진	41.7	38.7	15.9	2.8	0.9
수자원확보 측면에서 장기적 대책 필요	35.6	41.4	19.1	3.0	0.9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하구둑 개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38.5	38.8	20.0	2.1	0.7
친수공간개발을 위한 기존사업과 이중중복 되지 않는 융·복합화 노력 필요	29.9	40.9	25.1	2.7	1.3



(3) 「갈등중재·조정포럼」 역할의 필요성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조직으로서 각계 전문가·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갈등중재·조정포럼」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필요하다는 의견이 31.4%, 필요하다는 의견이 49.1%, 보통이라는 의견이 15.6%,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9%, 매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0%로 나타나 전체의 80.5%가 중재·조정을 위한 중간조직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표 28> 「갈등중재·조정포럼」 역할의 필요성

항목	빈도(명)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	216	31.4
필요	338	49.1
보통	107	15.6
불필요	13	1.9
매우 불필요	14	2.0
무응답	6	
합계	694	100.0

4. 집단간 차이검증

1)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인식관련)

(1) 사업관련 인식의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에 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군에 따라 ANOVA분석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9> 직업군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항목	직업군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확률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인식여부	2.8586 (A)	2.8954 (A)	2.7604 (A)	1.447	0.236
찬반여부	3.1717 (C)	2.9326 (B)	2.6009 (A)	10.564	0.000**
지역발전	3.2708 (C)	2.8296 (B)	2.5853 (A)	15.365	0.000**
용수공급	2.9394 (B)	2.6929 (A)	2.7083 (A)	2.124	0.120
수질개선	2.8776 (B)	2.4959 (A)	2.2930 (A)	10.049	0.000**
레저기반	3.1020 (B)	2.4946 (A)	2.4047 (A)	14.360	0.000**

※: p<0.05, **: p<0.01



그 결과 농민, 주민, 공무원 집단 모두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하여 공무원들은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에 비해 농민은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에 관한 조사결과 역시 공무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농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인 용수공급능력확보, 수질개선, 레저기반 확충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주민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이는 반면 농민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2) 사업관련 인식의 거주지(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에 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지역)에 따라 ANOVA분석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0> 거주지(지역)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항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 확률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타		
1	3.0811(BC)	2.7353(A)	2.9438(ABC)	2.6735(A)	2.6711(A)	2.8100(AB)	2.9167(ABC)	3.1667(C)	2.745	0.008**
2	2.6486(AB)	3.2745(D)	2.8864(ABC)	2.7857(ABC)	3.0921(CD)	2.6931(AB)	2.6168(A)	3.0238(BCD)	4.154	0.000**
3	2.6111(AB)	3.1667(C)	2.8977(BC)	2.6875(AB)	3.1892(C)	2.4516(A)	2.6762(AB)	2.9268(BC)	6.052	0.000**
4	2.7027(ABCD)	2.9802(DE)	2.8391(BCDE)	2.6082(ABC)	3.1053(E)	2.4900(AB)	2.4579(A)	2.9048(CDE)	4.368	0.000**
5	2.3919(AB)	2.8911(C)	2.6591(BC)	2.2577(A)	2.6533(BC)	2.2424(A)	2.2430(A)	2.7619(C)	5.379	0.000**
6	2.1757(A)	2.8812(D)	2.7701(CD)	2.4433(ABC)	2.8533(D)	2.3434(AB)	2.4019(ABC)	2.5952(BCD)	4.653	0.000**

※ 항목 : 1. 인식여부, 2. 찬반여부, 3. 지역발전, 4. 용수공급, 5. 수질개선, 6. 레저기반조성

*: $p < 0.05$, **: $p < 0.01$

그 결과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식여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여군, 연기군, 논산시 등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지역은 「금강살리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임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찬반여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양군이 찬성여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여군, 기타지역, 논산시 등은 찬성여부가 낮은 편이었고, 그 중 논산시가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가 반대에 가까웠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조사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서천군 응답자들이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으며, 논산시와 부여군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서 용수공급능력 1.0억톤 증대를 위한 보(부여보, 금강보, 금남보) 설치와 하도준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31개) 등에 관한 만족(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양군의 경우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반대로 부여군의 경우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서 2012년 금강 본류 2급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 농경지 정리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만족(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천군, 청양군, 연기군 등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기타 지역과 논산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편으로 조사되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서 강 중심의 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자전거길 설치,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옛 뱃길복원(백제문화관광루트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만족(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주시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부여군과 논산시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2)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

(1)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직업군에 따라 ANOVA분석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직업군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대한 영향정도 분산분석

항목	직업군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확률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용수이용	2.3871(A)	2.3224(A)	2.7407(B)	15.328	0.000**
농지보상	1.8000(A)	2.0191(B)	1.8972(AB)	3.101	0.046*
상하류간	2.2553(A)	2.2636(A)	2.4047(A)	2.089	0.125
땀피(선호)	2.5957(B)	2.3196(A)	2.4366(AB)	3.641	0.027*
소유권(재산)	1.8404(A)	2.0410(B)	2.2150(B)	5.672	0.004**
골재채취	2.0638(A)	2.2198(A)	2.4272(B)	5.486	0.004**
수질정화	1.9681(A)	2.0847(B)	2.4131(B)	11.776	0.000**
권한·권리	2.0213(A)	2.1339(AB)	2.2991(B)	3.780	0.023*

*: p<0.05, **: p<0.01



그 결과 용수이용에 따른 갈등과 골재채취 관련 갈등에 대하여 농민과 주민 집단보다 공무원 집단에서 그 갈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조사되었으며, 농지보상, 소유권(재산), 골재채취, 수질정화, 권한·권리 등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농민이 가장 갈등의 영향정도가 클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일반주민과 공무원집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 주어진 문항에서 농민집단에서 갈등원인의 영향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유일하게 펌피(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그 영향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은 일반주민집단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공무원 집단, 농민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2)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거주지(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지역)에 따라 ANOVA분석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 거주지(지역)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대한 영향정도 분산분석

항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 확률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타		
1	2.6622(CD)	2.6040(CD)	2.3929(ABC)	2.3918(ABC)	2.8767(D)	2.1900(A)	2.2736(AB)	2.5366(BC)	5.364	0.000**
2	2.2027(CD)	1.9500(BC)	2.2706(D)	1.8454(AB)	1.6486(A)	1.8061(AB)	1.8505(AB)	2.2195(CD)	5.629	0.000**
3	2.5479(B)	2.3762(AB)	2.2791(AB)	2.2680(AB)	2.2329(A)	2.1800(A)	2.2991(AB)	2.3171(AB)	1.390	0.206
4	2.4795(AB)	2.6600(B)	2.3452(AB)	2.2083(A)	2.5205(AB)	2.3030(A)	2.2830(A)	2.4250(AB)	2.436	0.018*
5	2.3649(B)	2.0100(A)	2.1786(AB)	2.0515(AB)	1.9726(A)	1.9697(A)	1.9813(A)	2.1220(AB)	1.728	0.099*
6	2.1489(BC)	2.6535(C)	2.3293(AB)	2.1340(AB)	2.2778(AB)	2.0816(AB)	2.0187(A)	2.2683(AB)	4.552	0.000**
7	2.2973(BC)	2.3500(C)	2.3176(C)	2.0947(ABC)	2.2877(BC)	1.8788(A)	2.0000(AB)	2.3415(C)	3.607	0.001**
8	2.4730(C)	2.2574(BC)	2.1765(ABC)	2.1158(AB)	2.1644(ABC)	1.8990(A)	2.1869(ABC)	2.1707(ABC)	2.699	0.009**

※ 항목 : 1. 용수이용, 2. 농지보상, 3. 상하류간, 4. 펌피(선호), 5. 소유권(재산), 6. 골재채취, 7. 수질정화, 8. 권한(권리)

*: $p < 0.05$, **: $p < 0.01$

그 결과 용수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서천군이 그 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여군은 용수이용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상문제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부여군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금산군의 경우 반대로 영향력에 대해 낮게 조사되었다.

상하류간 갈등에 대한 영향정도는 부여군과 서천군의 경우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주시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펌피(선호)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영향정도는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논산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조사되었다.

소유권(재산) 유지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주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에 관한 반응이 저조하였다.

골재채취관련 갈등의 영향정도는 청양군의 경우 그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논산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에 가장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정화 비용분담에 따른 갈등의 영향정도는 서천군의 경우 그 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논산시, 금산군, 기타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권한 및 권리에 관한 갈등의 영향정도는 서천군의 경우 발생할 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주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에 가장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3)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1) 갈등해결방안의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의 목표설정, 합의형성, 다자간 참여와 소통, 역할분담, 책임공유, 최적 자원배분을 통한 가치실현, 인접지역간 상호보완적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배분, 지역현안사업 중심으로의 접근, 갈등지역간의 관계 개선노력, 상호 신뢰 및 협력강화, 철저한 사전조사, 정보 및 자료의 공유, 유역 전체의 종합적 관리, 다양한 협력·조정기구와의 연계, 민간자본·외국적 자본 유치 등 다각적 사업추진의 중요성,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추진,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장기적 대책 필요,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하구둑 개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기존사업과 이중·중복되지 않는 융·복합화, 갈등중재·조정포럼의 역할 필요 등과 같은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을 구성, 직업군에 따라 ANOVA분석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결과 공동목표, 합의형성, 참여·소통, 역할분담, 책임공유, 자원배분, 상호보완, 시너지효과, 현안사업, 관계개선, 신뢰·협력, 사전조사, 정책연계, 의견수렴, 수질개선, 친수공간, 중재기구 등과 같은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원에서 농민, 주민, 공무원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표 33> 직업군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분산분석

항목	직업군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확률
	농업(임업)	주민	공무원		
공동목표	1.9175(A)	1.9091(A)	1.7788(A)	1.989	0.138
합의형성	1.8866(A)	1.8781(A)	1.8018(A)	0.776	0.461
참여·소통	1.8229(A)	1.9139(A)	1.8525(A)	0.687	0.503
역할분담	2.0632(A)	2.1056(A)	2.1382(A)	0.291	0.748
책임공유	2.0729(A)	1.9917(A)	2.1475(A)	2.183	0.113
자원배분	2.1579(A)	2.1441(A)	2.1121(A)	0.128	0.880
상호보완	1.9895(A)	2.1257(A)	2.0833(A)	0.956	0.385
시너지효과	2.2447(A)	2.2151(A)	2.3333(A)	1.171	0.311
현안사업	2.0538(A)	2.1517(A)	2.2279(A)	1.367	0.256
관계개선	1.8632(A)	1.9190(A)	1.9814(A)	0.748	0.474
신뢰·협력	1.9149(A)	1.8917(A)	2.0737(A)	3.018	0.050*
사전조사	1.6842(A)	1.6556(A)	1.5945(A)	0.559	0.572
정보공유	1.9167(AB)	1.7667(A)	1.9907(B)	4.875	0.008**
유역관리	1.8817(A)	1.9022(A)	2.1106(B)	4.909	0.008**
조정기구	1.9684(A)	1.9944(AB)	2.1620(B)	3.036	0.049*
자본유치	2.4574(AB)	2.2591(A)	2.5576(B)	6.395	0.002**
정책연계	2.2766(A)	2.1341(A)	2.2824(A)	2.158	0.116
의견수렴	1.8421(A)	1.7867(A)	1.8802(A)	0.822	0.440
수자원확보	1.9355(AB)	1.8389(A)	2.0558(B)	4.315	0.014*
수질개선	1.9368(A)	1.8425(A)	1.9128(A)	0.726	0.484
친수공간	1.9684(A)	2.0084(A)	2.1429(A)	2.008	0.135
중재기구	1.7938(A)	1.9676(A)	1.9591(A)	1.678	0.188

*: $p < 0.05$, **: $p < 0.01$

그러나 갈등요인의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민간자본·외국적 자본 유치 등 다각적 사업추진, 수자원확보 측면에서의 장기적 대책 필요 등과 같은 문항에서는 일반 주민이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민의 경우 중도적인 입장에 놓여있다.

유역전체의 종합적 관리에 대해서는 농민과 주민의 경우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다양한 협력, 조정기구와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민이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반주민의 경우 중도적인 입장을 표출하였다.

(2) 갈등해결방안의 거주지(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거주지(지역)에 따른 ANOVA분석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강권역 7개 시·군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갈등해결방안의 각 문항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합의형성, 역할분담, 최적 자원배분을 통한 가치실현, 인접지역간 상호보완적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배분,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접근, 갈등지역간의 관계 개선 노력, 상호 신뢰 및 협력강화, 유역 전체의 종합적 관리, 다양한 협력·조정기구와의 연계, 민간자본·외국적 자본 유치 등 다각적 사업추진,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추진, 수자원확보 측면에서 장기적 대책 필요,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하구둑 개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등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각 문항 중에서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부여군은 합의형성, 다자간 참여와 소통, 갈등지역간의 관계 개선 노력, 철저한 사전조사가 「금강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연기군의 경우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갈등중재·조정포럼」 등의 중재조직의 역할이 필요성을 중요시 하였고, 공주시의 경우 공동의 목표설정이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거주지(지역)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분산분석

항 목	거주지(지역)에 따른 분산분석								F값	유의 확률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기타		
1	1.7600(A)	2.0700(B)	1.9405(AB)	1.8229(AB)	1.7297(A)	1.8081(AB)	1.8889(AB)	1.8810(AB)	1.643	0.120
2	1.8108(AB)	1.8600(AB)	2.0714(B)	1.8542(AB)	1.7600(A)	1.7576(A)	1.8774(AB)	1.8333(AB)	1.427	0.191
3	1.8514(AB)	1.9600(B)	2.0241(B)	1.8041(AB)	1.6438(A)	1.8081(AB)	1.9907(B)	1.9512(B)	2.031	0.049*
4	2.0411(AB)	2.2400(B)	2.2500(B)	2.1458(AB)	2.0411(AB)	1.8990(A)	2.1415(AB)	2.0952(AB)	1.877	0.071
5	1.9189(A)	2.1700(A)	2.1566(A)	2.0833(A)	2.0959(A)	1.9091(A)	2.0467(A)	2.0238(A)	1.105	0.358
6	2.0833(AB)	2.3163(B)	2.2099(AB)	2.1368(AB)	2.0959(AB)	1.9394(A)	2.1429(AB)	2.1707(AB)	1.522	0.157
7	2.1268(AB)	2.1212(AB)	2.3735(B)	2.0619(B)	2.0822(AB)	1.7576(A)	2.1038(AB)	2.2619(AB)	3.794	0.000* *
8	2.1644(AB)	2.4400(BC)	2.4268(BC)	2.1753(AB)	2.3973(BC)	1.9082(A)	2.2019(AB)	2.5476(C)	4.418	0.000* *
9	2.2055(BC)	2.2323(BC)	2.3951(C)	2.0737(AB)	2.1918(BC)	1.8571(A)	2.1442(BC)	2.3810(BC)	3.298	0.002* *
10	1.9865(AB)	1.8990(AB)	2.1829(B)	1.9368(AB)	1.7945(A)	1.7653(A)	1.9717(AB)	1.9286(AB)	2.044	0.048*
11	1.8904(AB)	2.0400(AB)	2.1446(B)	1.8454(AB)	1.9726(AB)	1.8163(A)	1.9528(AB)	2.0238(AB)	1.348	0.225
12	1.6389(AB)	1.7000(AB)	1.8659(B)	1.5464(A)	1.4189(A)	1.600(AB)	1.6792(AB)	1.6429(AB)	2.091	0.042*
13	1.7808(A)	1.9200(A)	1.9024(A)	1.7835(A)	1.8767(A)	1.8081(A)	1.9533(A)	1.8095(A)	0.550	0.797
14	2.0694(AB)	2.0300(AB)	2.1084(B)	1.9375(AB)	1.8611(AB)	1.7959(A)	1.9717(AB)	2.0000(AB)	1.387	0.208
15	2.1408(B)	2.2121(B)	2.0723(AB)	2.0208(AB)	1.9452(AB)	1.8265(A)	2.0660(AB)	2.1190(AB)	1.813	0.082
16	2.2740(AB)	2.5600(BC)	2.3373(ABC))	2.2917(AB)	2.6164(BC)	2.1633(A)	2.3396(ABC))	2.6667(C)	2.495	0.016*
17	2.2917(AB)	2.3600(B)	2.2530(AB)	2.0842(AB)	2.3836(B)	1.9898(A)	2.1509(AB)	2.1429(AB)	2.065	0.045*
18	1.8919(AB)	1.8889(AB)	2.0357(B)	1.8125(AB)	1.7297(AB)	1.6465(A)	1.7830(AB)	1.8571(AB)	1.662	0.115
19	2.01235(B)	2.0300(B)	2.0488(B)	1.9271(B)	2.0274(B)	1.6392(A)	1.8286(AB)	1.9524(B)	2.468	0.017*
20	1.9452(B)	1.9400(B)	2.1071(B)	1.8354(AB)	1.8243(AB)	1.6100(A)	1.8679(AB)	2.0238(B)	2.748	0.008* *
21	1.9452(A)	2.1900(A)	2.1807(A)	2.3009(A)	2.0417(A)	1.8687(A)	2.0377(A)	2.0952(A)	1.396	0.204
22	1.8649(AB)	2.0392(AB)	2.1000(B)	1.7732(A)	1.9600(AB)	1.8713(AB)	1.9626(AB)	1.9756(AB)	1.391	0.206

※ 항목 : 1. 공동목표, 2. 합의형성, 3. 참여소통, 4. 역할분담, 5. 책임공유, 6. 자원배분, 7. 상호보완,
8. 시너지효과, 9. 현안사업, 10. 관계개선, 11. 신뢰협력, 12. 사전조사, 13. 정보공유, 14. 유역관리, 15. 조정기구,
16. 자본유치, 17. 정책연계, 18. 의견수렴, 19. 수자원확보, 20. 수질개선, 21. 친수공간, 22. 중재기구
*: $p < 0.05$, **: $p < 0.01$



4. 인터뷰조사 결과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과 중재·조정·해결을 위한 주민, 공무원, 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인터뷰 결과¹⁾

(1)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필요

주민과 공무원들은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살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의 필요에 따른 정부차원의 홍보필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에 널리 홍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소, 4대강 살리기가 아닌 대운하 사업을 돌려서 추진한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및 홍보 등 이해를 위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사업을 실시, 금강 살리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여 관심을 갖고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이익과 손실, 장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 금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 지역주민조차도 잘 알지 못한 현 상황에서 지역문제에서 지방정부 외에도 언론과 NGO,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홍보 등이 중요하다는 다수의 중복된 의견이 나타났다.

(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기구 필요 (포럼,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

또한 주민과 공무원들은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중요시 해야하며, 다양한 포럼으로 여러 차례 의견 교환 및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각 지역 간 연대성을 검토, 지방공무원 분할책임제가 있어 부분적으로 지역 간의 모든 면이 차등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의견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환경관련단체등과의 사업취지, 사업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조사되었으며, 일방적, 권위적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은 시민

1) 2009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설문조사원들이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정리함.



단체나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많은 장애물이 발생할 것으로, 양극화 현상을 막고 통합·조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차원이 아닌 국민들의 쓴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의견도 나타났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는 갈등 조정이 불가능 하며, 주민과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 및 홍보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많이 언급되었다.

(3) 금강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강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은 추진하되 주민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민의 의견수렴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듯 하며, 아직 국민간, 단체간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지도 못하였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이라는 명목하에 24조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업추진에 있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기초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이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이익창출 극대화에 힘을 쓰면서 단계적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추진 초부터 민간사회단체의 반대성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반대 단체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장기적으로 정말 금강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것인지 추진단체가 확실한 근거나 확신을 주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금강살리기 사업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 꼭 성공 했으면 좋겠지만, 계획한 대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나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과의 마찰도 없는 관 주도적인 금강살리기가 아니라 시민, 주민 입장에서의 금강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하여 금강살리기와 연관된 시·군간 협의체 필요, 광역자치단체 주관의 협의과정 필요, 금강살리기 사업의 정보공유 및 민, 관의 합의점 도출 후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급적 자연적 환경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추진 되어야 하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운하건설에 따른 해소 방안 마련 시행(운하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준설대상 저수지(농업용)의 준설실시로 퇴적물 제거 및 오염물질 제거,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하수관리(오염물질처리시설)등을 설치하여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천



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근본적인 차단, 업무 추진 전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및 사전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금강살리기 사업추진 시 주민의 사회적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담 공무원 인력 필요

공무원들의 경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담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한 대 입을 모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역할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적정인력 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인력을 증대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전담 공무원이 필요(2~3명 정도),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3~4명) 증원 필요 등 실질적인 인원 수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 필요로 하나, 현 정권에서는 지속적인 감축기조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원을 조정하여 인력배치만하고 해당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추진할 적정인력에 대한 정원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보상민)생계 대책, 업무추진관련 예산 부족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환경보전이 우선된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금강살리기 사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중요성에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계 보존이 우선, 다음세대에 이보다 더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자연의 본질적인 정확력을 기본바탕으로 정비되지 않는한 의미가 없으며, 일시적이며 상업적인 눈요기식 생태하천은 세월이 흐른뒤 회복하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수도 있다, 환경에 맞추어가는 자연스런 강줄기야 말로 가장 안전한 자연일 것이며, 인위적으로 개선된 획일적인 강은 의미가 없다, 몇 천만년을 두고 흐른 금강의 물길에 대한 자연조정력과 인위적 조정에 대한 의문과 미래세대에 대한 자연환경 공유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 하천부지의 점용문제를 둘러싼 보상대책마련 필요

하천부지의 점용문제 등을 둘러싼 보상대책에 관해서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하천부지에서 경작해 생계유지를 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보상받는 분이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받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필요한 부분적으로 준설작업을 했으면한다, 특수작물 경작자의 아픔과 소득 실업의 생각하시어 생계의 중요



성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한다, 비닐하우스 등 무단점 사용하는 시설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영농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 시설물이 없는 일반 토지(답,전)에 대하여도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줌으로써 갈등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명 부여보로 명칭되는 다기능보에 대하여 우안은 청양에 연접되는 시설물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예) ① 청양·부여보, ② 백제보 등으로 명칭변경을 할 필요가 있음(시·군간의 잠재갈등해소)], 현재 갈등해소를 위하여 무단 점용하여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실 농비 보상 국민갈등에 최소화되리라 생각되므로 무단경작자에게 실농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2) 전문가 인터뷰 결과²⁾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과 중재·조정·해결을 위한 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공적인 「금강살리기」를 위한 시·군 공동협력 필요

엄청난 양의 사업비가 집중 투입됨에 따라 지자체 간, 자치단체와 지역민 간 갈등의 소지도 적지 않음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며, 상·하류 자치단체 간 물 이용에 따른 수량 문제를 비롯해 지역의 특성과 경제성을 고려치 않은 과잉투자과 유치경쟁, 인접지역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독적 사업 강행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형태를 지칭하는 ‘포크 배럴(pork-barrel)’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이 같은 갈등 소지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접지역 간 상호보완적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사업 및 공동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 간 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군 협의회’를 시급히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시·군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미국의 순회판사처럼 지역을 순회하며 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갈등순회 매니저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지역민은 자발적인 참여로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며 산·학·연·언(産·學·研·言)도 각각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거버넌스 체제를 조기에

2) 2009년 4월 10일 금강권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과 대전일보사가 공동주최한 「금강살리기」공동협력포럼의 회의내용을 요약정리함.



구축해야 한다.

(2) 각 시·군의 실정 파악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

각 시·군별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과 중재·조정·해결을 위한 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주시

금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개별 사업들의 중복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

또 하천 정비나 치수 공간 확보 등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강과 백제라는 문화·역사적 요소를 고려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함께 추진돼야 하며,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정부 국책사업이 지역의 반발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이번 금강 살리기도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며, 금강살리기는 공주, 부여, 세종시 등을 잇는 뱃길 조성과 유람선을 운항하는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금강의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② 논산시

금강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는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논산시는 논산지역에 산재된 기독교 역사문화자원을 체계화하는 ‘기독교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한편 금강지구 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를 관광 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금강권역의 공통된 사업이기도 하다.

각 시·군이 공통으로 황포돛배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금강에서만 나오는 우여(우어) 등 특산품을 활용해 관광 루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향토음식 전수관 조성 사업을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추가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③ 금산군

현재의 금강 살리기는 대부분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 등에 치중돼 있음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를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정통성을 살리고 역사문화 현장을 자원화한다면 금강 살리기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금산은 금강의 상류 32km가 흐르는 지역으로 금강의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임. 금강 상류지역의 수질 보전 차원에서 금산군이 제출한 하천환경개선 사업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금강 상류인 금산은 금강이 32km에 걸쳐 유곡(幽谷)하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어죽의 명소이자 고려인삼의 종주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에서 상류지역인 금산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금산 금강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④ 연기군

금강살리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지류 하천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 지역업체가 대거 참여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비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공사 시행 과정에는 지역 내 중장비 업체나 건설자재 생산업체가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금강을 따라 시·군과 연계된 관광도로 및 자전거 도로를 조치원읍까지 확대해 연기군 북부권 관광벨트와 연계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사업은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핵심사업이기에 좀 더 연구해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또 금강살리기 사업을 보면 지천에 대한 검토가 안된 것 같음 금강살리기로 인해 오히려 지천의 피해를 유발해선 안 되며, 충남도 차원에서 금강권역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⑤ 부여군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시행청과 이익집단 간의 갈등도 내재돼 있어 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하천부지 경작 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과 하천 부지 내 사업의 축소도 요구되고 있다.

부여에서는 백제의 역사적 무대인 금강을 재발견하고 21세기 창조적 유산으로 계승 발



전시킬 수 있는 ‘금강역사문화관’ 건립과 백마강 주변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황포돛배로 연계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서 금강권역의 중심 도시로서 백제의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금강살리기와 금강 옛 모습 되살리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금강권역 시·군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고, 또 하천 부지의 점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⑥ 서천군

물길을 만들고 금강변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금강 살리기로 생각해선 안되며, 이 사업을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하구둑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면서 부정적 기능을 극복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금강을 살리기 위해 해수 부분 유통(기수역 복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며, 금강살리기가 대부분 금강 상류부터 금강하구둑까지의 금강 본류를 대상으로 하고, 하구둑 밖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임.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시급히 구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에는 장항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금강살리기와 국립생태원 등 대안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길 건의하였다.

⑦ 청양군

금강을 살아있는 물길로 복원하는 것이야 말로 충청인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일 것이며, 이를 위해 하천을 복원하고 금강변의 백제문화를 재 창조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청양군은 금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백제문화권의 풍부한 역사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각 지천과 금강살리기 사업이 연계되도록 추진돼야함. 본류 만이 아닌 지천에 대한 대책을 금강살리기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금강살리기」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을 파악하여 예방·중재·조정³⁾

부여의 경우 불법관행농지보상(현행 법령상)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내포, 부여의 하천 부지 사용자들의 보상갈등이 심각한 수준임, 개간비, 영농비와 관련한 밭떼기 등으로 보상의 갈등은 증폭, 7개 시·군 대상 토지공사 통해 물건조사 완료(보상협의회), 생계대책위

3) 2009년 7월 21일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에서 개최한 ‘2009년 포럼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관리 현장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회의’ 회의내용을 요약정리함.



원회 구성 및 여러차례 협의절차 진행, 집단민원 해결 필요,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행복도시의 보상문제 및 국민권익위와의 역할에 따른 갈등소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 단체장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 갈등전문가 및 협상가의 확보 절차가 요청됨,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이 필요, 해소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진행이 요구됨, 오늘날 사회 곳곳에 인위적 갈등이 예상되며,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음, 갈등관리 ‘전문관’의 무리한 개입은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음, 갈등에 따른 화해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인 갈등원인의 해결 및 이에 따른 포용력과 행정적 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매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조사되었다.

6.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소지에 따른 해결방안을 위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갈등유형을 행위주체별 갈등, 사업내용별 갈등, 갈등성격별 갈등, 표출양상별 갈등, 쟁점범위별 갈등으로 나누어 설문문항을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인식관련),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해결방안,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크게 네가지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한 결과 「금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및 거주지(지역)에 따른 인식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공무원 집단에 비해 농민과 일반주민들의 찬성여부가 낮게 조사되었으며,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나, 공무원 집단에 비해 농민과 일반주민들의 반응을 다소 낮게 나타냈고, 이 역시 직업 및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사되었다.

한편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예상되는 갈등요인에 관한 조사 항목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심할 지를 예상해 보았는데, 중앙(자치단체)-NGO, 주민-중앙정부, 주민-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역시 직업과 거주지(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갈등의 표출형태는 현재적 갈등이, 갈등의 발생범위는 지역간(시·군)간 갈등이, 발생한 갈등의 영향은 농지보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여군 등 특정 지역에서, 농민 등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은 주어진 문항에 대해 대체로 그 중요성에 동의하는 반응이 나타났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장, 시민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조정하기 위한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인터뷰 조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개별 사업들의 중복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치단체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는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에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대거 참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었다.

2) 시사점 도출

이에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권역 각 시·군의 사업이 정부 종합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하천 부지의 점용 문제는 각 시·군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끌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금강살리기는 장기적 관점에서 육지부에서부터 오염원의 차단과 지천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시·군간 협력도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 유사한 사업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협의체를 만들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기구도 필요하다.

여섯째,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담 공무원 인력도 필요하다.

여덟째, 환경보전이 우선된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이처럼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갈등 유형별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갈등해소 및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image shows a completely blank white rectangular area. It is surrounded by a thin, solid black border that frames the entire content. There are no markings, text, or illustrations present on the page.

This image shows a completely blank white rectangular area. It is surrounded by a thin, solid black border that frames the entire content. There are no markings, text, or illustrations present on the white surface.

Case No.	Case Name	Case Type	Case Status	Case Date	Case Location	Case Description	Case Details	Case Notes	Case Comments	Case Actions
1	John Doe	Case 1	Open	2023-01-01	New York	Case 1 Description	Case 1 Details	Case 1 Notes	Case 1 Comments	Case 1 Actions
2	Jane Smith	Case 2	Closed	2023-01-02	California	Case 2 Description	Case 2 Details	Case 2 Notes	Case 2 Comments	Case 2 Actions
3	Bob Johnson	Case 3	Pending	2023-01-03	Texas	Case 3 Description	Case 3 Details	Case 3 Notes	Case 3 Comments	Case 3 Actions
4	Alice Brown	Case 4	Open	2023-01-04	Florida	Case 4 Description	Case 4 Details	Case 4 Notes	Case 4 Comments	Case 4 Actions
5	Charlie Davis	Case 5	Closed	2023-01-05	Illinois	Case 5 Description	Case 5 Details	Case 5 Notes	Case 5 Comments	Case 5 Actions
6	Diana Prince	Case 6	Pending	2023-01-06	Washington	Case 6 Description	Case 6 Details	Case 6 Notes	Case 6 Comments	Case 6 Actions
7	Edward Norton	Case 7	Open	2023-01-07	Massachusetts	Case 7 Description	Case 7 Details	Case 7 Notes	Case 7 Comments	Case 7 Actions
8	Fiona Glenanne	Case 8	Closed	2023-01-08	Ontario	Case 8 Description	Case 8 Details	Case 8 Notes	Case 8 Comments	Case 8 Actions
9	George Clooney	Case 9	Pending	2023-01-09	Georgia	Case 9 Description	Case 9 Details	Case 9 Notes	Case 9 Comments	Case 9 Actions
10	Helen Mirren	Case 10	Open	2023-01-10	London	Case 10 Description	Case 10 Details	Case 10 Notes	Case 10 Comments	Case 10 Actions
11	Ian McKellen	Case 11	Closed	2023-01-11	Edinburgh	Case 11 Description	Case 11 Details	Case 11 Notes	Case 11 Comments	Case 11 Actions
12	Jennifer Lawrence	Case 12	Pending	2023-01-12	Indiana	Case 12 Description	Case 12 Details	Case 12 Notes	Case 12 Comments	Case 12 Actions
13	Keanu Reeves	Case 13	Open	2023-01-13	Manitoba	Case 13 Description	Case 13 Details	Case 13 Notes	Case 13 Comments	Case 13 Actions
14	Liam Neeson	Case 14	Closed	2023-01-14	Quebec	Case 14 Description	Case 14 Details	Case 14 Notes	Case 14 Comments	Case 14 Actions
15	Mel Gibson	Case 15	Pending	2023-01-15	South Australia	Case 15 Description	Case 15 Details	Case 15 Notes	Case 15 Comments	Case 15 Actions
16	Natalie Portman	Case 16	Open	2023-01-16	Denmark	Case 16 Description	Case 16 Details	Case 16 Notes	Case 16 Comments	Case 16 Actions
17	Orlando Bloom	Case 17	Closed	2023-01-17	Spain	Case 17 Description	Case 17 Details	Case 17 Notes	Case 17 Comments	Case 17 Actions
18	Peter Dinklage	Case 18	Pending	2023-01-18	Alabama	Case 18 Description	Case 18 Details	Case 18 Notes	Case 18 Comments	Case 18 Actions
19	Quentin Tarantino	Case 19	Open	2023-01-19	California	Case 19 Description	Case 19 Details	Case 19 Notes	Case 19 Comments	Case 19 Actions
20	Rachel Watson	Case 20	Closed	2023-01-20	Victoria	Case 20 Description	Case 20 Details	Case 20 Notes	Case 20 Comments	Case 20 Actions
21	Samuel L. Jackson	Case 21	Pending	2023-01-21	Georgia	Case 21 Description	Case 21 Details	Case 21 Notes	Case 21 Comments	Case 21 Actions
22	Tina Turner	Case 22	Open	2023-01-22	Nevada	Case 22 Description	Case 22 Details	Case 22 Notes	Case 22 Comments	Case 22 Actions
23	Uma Thurman	Case 23	Closed	2023-01-23	California	Case 23 Description	Case 23 Details	Case 23 Notes	Case 23 Comments	Case 23 Actions
24	Viola Davis	Case 24	Pending	2023-01-24	Massachusetts	Case 24 Description	Case 24 Details	Case 24 Notes	Case 24 Comments	Case 24 Actions
25	Wesley Snipes	Case 25	Open	2023-01-25	Florida	Case 25 Description	Case 25 Details	Case 25 Notes	Case 25 Comments	Case 25 Actions
26	Xosha Roquemore	Case 26	Closed	2023-01-26	California	Case 26 Description	Case 26 Details	Case 26 Notes	Case 26 Comments	Case 26 Actions
27	Yvonne Strainopoulos	Case 27	Pending	2023-01-27	California	Case 27 Description	Case 27 Details	Case 27 Notes	Case 27 Comments	Case 27 Actions
28	Zoe Lister-Jones	Case 28	Open	2023-01-28	California	Case 28 Description	Case 28 Details	Case 28 Notes	Case 28 Comments	Case 28 Actions
29	Adam Sandler	Case 29	Closed	2023-01-29	California	Case 29 Description	Case 29 Details	Case 29 Notes	Case 29 Comments	Case 29 Actions
30	Ben Stiller	Case 30	Pending	2023-01-30	California	Case 30 Description	Case 30 Details	Case 30 Notes	Case 30 Comments	Case 30 Actions
31	Cameron Diaz	Case 31	Open	2023-01-31	California	Case 31 Description	Case 31 Details	Case 31 Notes	Case 31 Comments	Case 31 Actions
32	Drew Barrymore	Case 32	Closed	2023-02-01	California	Case 32 Description	Case 32 Details	Case 32 Notes	Case 32 Comments	Case 32 Actions
33	Ewan McGregor	Case 33	Pending	2023-02-02	Scotland	Case 33 Description	Case 33 Details	Case 33 Notes	Case 33 Comments	Case 33 Actions
34	Faye Dunaway	Case 34	Open	2023-02-03	California	Case 34 Description	Case 34 Details	Case 34 Notes	Case 34 Comments	Case 34 Actions
35	Gary Oldman	Case 35	Closed	2023-02-04	England	Case 35 Description	Case 35 Details	Case 35 Notes	Case 35 Comments	Case 35 Actions
36	Halle Berry	Case 36	Pending	2023-02-05	California	Case 36 Description	Case 36 Details	Case 36 Notes	Case 36 Comments	Case 36 Actions
37	Ian Somerhalder	Case 37	Open	2023-02-06	California	Case 37 Description	Case 37 Details	Case 37 Notes	Case 37 Comments	Case 37 Actions
38	Jessie J	Case 38	Closed	2023-02-07	London	Case 38 Description	Case 38 Details	Case 38 Notes	Case 38 Comments	Case 38 Actions
39	Keanu Reeves	Case 39	Pending	2023						

Case No.	Case Name	Case Type	Case Status	Case Date	Case Location	Case Description	Case Details	Case Notes	Case Comments	Case Actions
1	John Doe	Case 1	Open	2023-01-01	New York	Case 1 Description	Case 1 Details	Case 1 Notes	Case 1 Comments	Case 1 Actions
2	Jane Smith	Case 2	Closed	2023-01-02	California	Case 2 Description	Case 2 Details	Case 2 Notes	Case 2 Comments	Case 2 Actions
3	Bob Johnson	Case 3	Pending	2023-01-03	Texas	Case 3 Description	Case 3 Details	Case 3 Notes	Case 3 Comments	Case 3 Actions
4	Alice Brown	Case 4	Open	2023-01-04	Florida	Case 4 Description	Case 4 Details	Case 4 Notes	Case 4 Comments	Case 4 Actions
5	Charlie Davis	Case 5	Closed	2023-01-05	Illinois	Case 5 Description	Case 5 Details	Case 5 Notes	Case 5 Comments	Case 5 Actions
6	Diana Prince	Case 6	Pending	2023-01-06	Washington	Case 6 Description	Case 6 Details	Case 6 Notes	Case 6 Comments	Case 6 Actions
7	Edward Norton	Case 7	Open	2023-01-07	Massachusetts	Case 7 Description	Case 7 Details	Case 7 Notes	Case 7 Comments	Case 7 Actions
8	Fiona Glenanne	Case 8	Closed	2023-01-08	Ontario	Case 8 Description	Case 8 Details	Case 8 Notes	Case 8 Comments	Case 8 Actions
9	George Clooney	Case 9	Pending	2023-01-09	Georgia	Case 9 Description	Case 9 Details	Case 9 Notes	Case 9 Comments	Case 9 Actions
10	Helen Mirren	Case 10	Open	2023-01-10	London	Case 10 Description	Case 10 Details	Case 10 Notes	Case 10 Comments	Case 10 Actions
11	Ian McKellen	Case 11	Closed	2023-01-11	Edinburgh	Case 11 Description	Case 11 Details	Case 11 Notes	Case 11 Comments	Case 11 Actions
12	Jennifer Lawrence	Case 12	Pending	2023-01-12	Indiana	Case 12 Description	Case 12 Details	Case 12 Notes	Case 12 Comments	Case 12 Actions
13	Keanu Reeves	Case 13	Open	2023-01-13	Manitoba	Case 13 Description	Case 13 Details	Case 13 Notes	Case 13 Comments	Case 13 Actions
14	Liam Neeson	Case 14	Closed	2023-01-14	Quebec	Case 14 Description	Case 14 Details	Case 14 Notes	Case 14 Comments	Case 14 Actions
15	Mel Gibson	Case 15	Pending	2023-01-15	South Australia	Case 15 Description	Case 15 Details	Case 15 Notes	Case 15 Comments	Case 15 Actions
16	Natalie Portman	Case 16	Open	2023-01-16	Denmark	Case 16 Description	Case 16 Details	Case 16 Notes	Case 16 Comments	Case 16 Actions
17	Orlando Bloom	Case 17	Closed	2023-01-17	Spain	Case 17 Description	Case 17 Details	Case 17 Notes	Case 17 Comments	Case 17 Actions
18	Peter Dinklage	Case 18	Pending	2023-01-18	Alabama	Case 18 Description	Case 18 Details	Case 18 Notes	Case 18 Comments	Case 18 Actions
19	Quentin Tarantino	Case 19	Open	2023-01-19	California	Case 19 Description	Case 19 Details	Case 19 Notes	Case 19 Comments	Case 19 Actions
20	Rachel Watson	Case 20	Closed	2023-01-20	Victoria	Case 20 Description	Case 20 Details	Case 20 Notes	Case 20 Comments	Case 20 Actions
21	Samuel L. Jackson	Case 21	Pending	2023-01-21	Georgia	Case 21 Description	Case 21 Details	Case 21 Notes	Case 21 Comments	Case 21 Actions
22	Tina Turner	Case 22	Open	2023-01-22	Nevada	Case 22 Description	Case 22 Details	Case 22 Notes	Case 22 Comments	Case 22 Actions
23	Uma Thurman	Case 23	Closed	2023-01-23	California	Case 23 Description	Case 23 Details	Case 23 Notes	Case 23 Comments	Case 23 Actions
24	Viola Davis	Case 24	Pending	2023-01-24	Massachusetts	Case 24 Description	Case 24 Details	Case 24 Notes	Case 24 Comments	Case 24 Actions
25	Wesley Snipes	Case 25	Open	2023-01-25	Florida	Case 25 Description	Case 25 Details	Case 25 Notes	Case 25 Comments	Case 25 Actions
26	Xosha Roquemore	Case 26	Closed	2023-01-26	California	Case 26 Description	Case 26 Details	Case 26 Notes	Case 26 Comments	Case 26 Actions
27	Yvonne Strainopoulos	Case 27	Pending	2023-01-27	California	Case 27 Description	Case 27 Details	Case 27 Notes	Case 27 Comments	Case 27 Actions
28	Zoe Lister-Jones	Case 28	Open	2023-01-28	California	Case 28 Description	Case 28 Details	Case 28 Notes	Case 28 Comments	Case 28 Actions
29	Adam Sandler	Case 29	Closed	2023-01-29	California	Case 29 Description	Case 29 Details	Case 29 Notes	Case 29 Comments	Case 29 Actions
30	Ben Stiller	Case 30	Pending	2023-01-30	California	Case 30 Description	Case 30 Details	Case 30 Notes	Case 30 Comments	Case 30 Actions
31	Cameron Diaz	Case 31	Open	2023-01-31	California	Case 31 Description	Case 31 Details	Case 31 Notes	Case 31 Comments	Case 31 Actions
32	Drew Barrymore	Case 32	Closed	2023-02-01	California	Case 32 Description	Case 32 Details	Case 32 Notes	Case 32 Comments	Case 32 Actions
33	Ewan McGregor	Case 33	Pending	2023-02-02	Scotland	Case 33 Description	Case 33 Details	Case 33 Notes	Case 33 Comments	Case 33 Actions
34	Faye Dunaway	Case 34	Open	2023-02-03	California	Case 34 Description	Case 34 Details	Case 34 Notes	Case 34 Comments	Case 34 Actions
35	Gary Oldman	Case 35	Closed	2023-02-04	England	Case 35 Description	Case 35 Details	Case 35 Notes	Case 35 Comments	Case 35 Actions
36	Halle Berry	Case 36	Pending	2023-02-05	California	Case 36 Description	Case 36 Details	Case 36 Notes	Case 36 Comments	Case 36 Actions
37	Ian Somerhalder	Case 37	Open	2023-02-06	California	Case 37 Description	Case 37 Details	Case 37 Notes	Case 37 Comments	Case 37 Actions
38	Jessie J	Case 38	Closed	2023-02-07	London	Case 38 Description	Case 38 Details	Case 38 Notes	Case 38 Comments	Case 38 Actions
39	Keanu Reeves	Case 39	Pending	2023						

Patient Information	
Full Name	
Date of Birth	
Gender	
Address	
City	
State	
Zip	
Phone	
Medical History	
Allergies	
Current Medications	
Past Medical History	
Family History	
Soci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Vital Signs	
Laboratory Tests	
Imaging Studies	
Diagnosis	
Treatment Plan	
Follow-up	

This image shows a completely blank white rectangular area. It is surrounded by a thin, solid black border that frames the entire content. There are no markings, text, or illustrations present on the page.

본 세미나 자료집은 충청남도의 재정지원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CDI 세미나 2010-02

실효성 있는「금강살리기 사업」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과제

인쇄일 : 2010년 1월 29일

발행일 : 2010년 2월 2일

발행처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TEL : 041-840-1238~9

FAX : 041-840-1229

E-mail : newsgun@hanmail.net(이준건 포럼조정위원장)

homepage : www.pcpf.or.kr

* 이 자료집의 전부 또는 부분 내용의 인용시 발행처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